

타임머신

The Time Machine

H.G. 웰스 (H.G. Wells)

1895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3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Claude Opus 검수

책 정보

원전

H.G. 웰스 (H.G. Wells), "The Time Machine" (William Heinemann 1895)

저자

H.G. 웰스 (H.G. Wells) · 1866-194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35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검수

Claude Opus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원작의 분위기와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
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I장

서문

시간 여행자(그렇게 부르는 편이 편리할 것이다)는 우리에게 심오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창백한 회색 눈은 반짝이며 빛났고, 평소 창백하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벽난로의 불꽃은 밝게 타올랐으며, 은으로 만든 백합 모양 전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빛은 우리 잔 속에서 번뜩이다 사라지는 기포들을 비추었다. 그가 특허를 낸 의자는 단순히 앉는 용도라기보다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식사를 마친 뒤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정밀함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유려하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역설(우리가 보기에는 그랬다)과 그 풍부한 지식에 몰입한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느긋하게 감상했다. 그는 마른 검지로 핵심적인 지점들을 짚어가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따라오셔야 합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 중 한두 가지는 제가 반박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기하학은 잘못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주제 아닙니까?” 붉은 머리에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필비가 말했다.

“타당한 근거도 없이 무언가를 믿어달라고 요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곧 제가 원하는 만큼의 확신을 여러분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두께가 전혀 없는 수학적 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수학적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심리학자가 말했다.

“또한, 길이와 너비, 두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육면체가 실재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의가 있습니다.” 필비가 말했다. “물론 고체 상태의 물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재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과연 ‘순간적인’ 정육면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겠네.” 필비가 말했다.

“단 한 순간도 지속되지 못하는 정육면체가 과연 실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비는 생각에 잠겼다.

“분명합니다.” 시간 여행자가 말을 이었다. “실재하는 모든 물체는 반드시 네 가지 방향으로 뻗어 있어야 합니다. 길이, 너비, 두께, 그리고 바로 ‘지속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신이 지닌 본래의 취약함 때문에, 우리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차원은 실제로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공간의 세 평면이라 부르는 세 차원과, 네 번째 차원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의 세 차원과 시간 사이에 실재하지 않는 구분을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이라는 방향을 따라 간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주 젊은 남자가 등불에 시가를 다시 붙이려 연신 발작하듯 애쓰며 말했다. “그거... 정말이지 아주 명쾌하군요.”

“이 사실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간 여행자가 약간 밝아진 어조로 말을 이었다.

“사실 이것이 바로 4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차원을 논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작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4차원이란 그저 시간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 차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이 시간을 따라 움직일 뿐이지요. 그런데 몇몇 어리석은 이들이 이 개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4차원에 대해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방 시장이 말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수학자들이 말하듯, 공간은 길이, 너비, 두께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개의 차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차원들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세 개의 평면을 기준으로 언제나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들은 왜 하필 ‘세 개’의 차원인지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 나머지 세 차원과 또 다른 직각을 이루는 방향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차원 기하학을 구축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사이먼 뉴컴 교수가 불과 한 달 전쯤 뉴욕 수학 협회에서 이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원이 두 개뿐인 평면 위에서도 우리는 3차원 입체의 모양을 그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그들이 원근법을 완벽히 다룰 수만 있다면 3차원 모델을 통해 4차원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시장이 중얼거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치 신비로운 주문을 되뇌는 사람처럼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그래요, 이제야 알 것 같군요.” 잠시 후, 그는 찰나의 생기를 띠며 말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는 꽤 오랫동안 이 4차원 기하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 중에는 꽤 흥미로운 것들도 있지

요.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십시오. 여덟 살 때의 초상화, 열다섯 살 때, 열 일곱 살 때, 스물세 살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죽 이어지는 초상화들이 차례로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분명 일종의 단면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인 한 인간의 4차원적 존재를 3차원적으로 나타낸 모습인 셈이지요.”

“과학자들은 말입니다.”

그 말을 내뱉기 전, 시간 여행자는 방금 한 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잠시 말을 멈추었다.

“과학자들은 시간이란 결국 공간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중적인 과학 도표인 기상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따라가는 이 선을 보십시오. 기압계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제는 기압이 그만큼 높았고, 어젯밤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에 다시 올라가더니,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여기까지 상승했습니다. 수은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의 차원 중 어느 곳을 따라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은주가 공간 속에서 이런 선을 그렸을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수은주가 분명히 이런 궤적을 그리며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이 시간이라는 차원을 따라 그려진 것이라고 결론 내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화로 속의 석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했다. “만약 시간이 정말로 공간의 4차원일 뿐이라면, 왜 시간은 지금까지 늘 공간과는 다른 무언가로 여겨져 온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공간의 다

른 차원들 사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 속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까?”

시간 여행자가 미소 지었다. “우리가 공간 속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고, 앞뒤로도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그렇게 해왔지요. 두 차원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아래는 어떨까요? 중력이 그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열기구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열기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은 간헐적으로 뛰어오르거나 지면의 굴곡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수직으로 이동할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위아래로 조금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의사가 말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훨씬 더 쉽습니다.”

“시간 속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현재라는 순간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선생님, 바로 그 지점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전체가 바로 그 지점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지요. 우리는 언제나 현재라는 순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형체도 없고 차원도 없는 우리의 정신적 존재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속도로 시간이라는 차원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50마일 상

공에서 삶을 시작한다면 아래를 향해 내려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심리학자가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은 공간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시간 속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위대한 발견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 속을 이동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회상할 때면 저는 그 일이 일어난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순간 저는 멍해지곤 하죠. 잠시 과거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물론 야만인이나 동물이 지면에서 6피트 높이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정 시간 동안 과거에 머물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명인은 이런 점에서 야만인보다 나은 처지에 있습니다. 문명인은 열기구를 타고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시간이라는 차원을 따라 흐르는 움직임을 멈추거나 가속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아예 방향을 돌려 반대로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 말인가요.” 필비가 말을 시작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시간 여행자가 말했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필비가 말했다.

“무슨 이유 말입니까?” 시간 여행자가 물었다.

“논리로야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요.” 필비가 말했다. “하지만 저를 설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도 모르죠.” 시간 여행자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야 제가 왜 4차원 기하학을 연구해 왔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하셨군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어떤 기계에 대해 막연한 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여행한다니!” 아주 젊은 남자가 외쳤다.

“운전자가 정하는 대로 공간이든 시간이든 그 어떤 방향으로도 가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기계 말입니다.”

필비는 그저 웃어넘기는 것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제게는 실험으로 증명된 결과가 있습니다.” 시간 여행자가 말했다.

“역사학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도구가 되겠군요.” 심리학자가 제안하듯 말했다. “예를 들어, 과거로 돌아가 헤이스팅스 전투에 대해 이미 받아들여진 기록들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주의를 끌게 되지 않을까요?” 의사가 물었다. “우리 조상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를 그리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호메로스와 플라톤의 입술에서 직접 그리스어를 배우는 격이겠군.” 아주 젊은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다간 자네는 예비 시험에서 영락없이 낙제하고 말 걸세. 독일 학자들이 그리스어를 워낙 많이 발전시켜 놓았으니 말이야.”

“그다음엔 미래가 있잖아요.” 아주 젊은 남자가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자가 붙을 때까지 묵혀둔 다음, 앞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철저히 공동체주의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를 발견하려는 것이지요.” 내가 말했다.

“정말이지 온갖 황당무계한 이론들뿐이군요!” 심리학자가 말을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지요.”

“실험적 검증이라고!” 내가 외쳤다. “정말로 *그것*을 검증하겠다는 말인가?”

“실험이라니!” 필비가 외쳤다. 그는 이미 머리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어쨌든 그 실험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심리학자가 말했다. “물론 전부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시간 여행자가 우리를 향해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여전히
열은 미소를 띤 채, 바지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는 천천히 방
을 나갔다. 긴 복도를 지나 자신의 실험실로 향하는 그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멀어지며 들려왔다.

심리학자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품고 있는 걸
까요?”

“어떤 눈속임이라도 썼겠지.” 의사가 말했다. 필비는 버슬럼에서 보
았던 마술사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서론을
채 마치기도 전에 시간 여행자가 돌아오는 바람에, 필비의 이야기는 맥
없이 끊기고 말았다.

제II장

타임머신

시간 여행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작은 시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반짝이는 금속 골격이었다. 그 안에는 상아와 투명한 결정질 물질이 섞여 있었다. 여기서 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만약 그의 설명을 그대로 믿으려 한다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기이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작은 팔각형 탁자 하나를 가져와 벽난로 앞으로 옮겼다. 탁자의 다리 두 개는 난로 앞 깔개 위에 놓였다. 그는 이 탁자 위에 그 장치를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탁자 위에 놓인 다른 물건이라고는 갓을 씌운 작은 전등 하나뿐이었는데, 그 밝은 빛이 모형을 비추고 있었다. 그 밖에도 양초가 열두 개쯤 있었다. 벽난로 선반 위 황동 촛대에 두 개, 벽면 촛대에 여러 개가 꽂혀 있어 방 안은 아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나는 벽난로에서 가장 가까운 낮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시간 여행자와 벽난로 사이쯤에 자리를 잡으려 의자를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다. 필비는 그의 뒤에 앉아 어깨 너머로 지켜보았다. 의사와 지방 시장은 오른쪽에서, 심리학자는 왼쪽에서 그의 옆모습을 주시했다. 아주 젊은 청년은 심리학자의 뒤에 서 있었다. 우리 모두는 잔뜩 긴장한 채 주의를 기울였다. 아무리 교묘하게 구상하고 능숙하게 꾸며낸 속임수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시간 여행자는 우리를 한 번 보고, 그러고는 기계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리학자가 물었다.

“이 작은 장치는,” 시간 여행자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괴고 장치 위로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그저 모형일 뿐입니다. 시간을 여행하기 위한 기계를 설계한 계획도죠. 보시다시피 모양이 아주 기묘하게 뒤틀려 있고, 이 막대 부분은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이상하게 반짝거릴 겁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작은 흰색 레버가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가 의자에서 일어나 그 물건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군.” 그가 말했다.

“만드는 데 2년이나 걸렸소.” 시간 여행자가 대꾸했다. 이윽고 우리 모두가 의사의 행동을 따라 한 뒤에 그가 말을 이었다.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었으면 하는 게 있소. 이 레버를 누르면 타임머신이 미래

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다른 쪽 레버를 누르면 그 움직임이 반대로 되 돌아온다는 사실 말이오. 이 안장은 시간 여행자가 앉는 자리를 나타낸 것이고. 이제 곧 내가 레버를 누르면 타임머신은 출발할 것이오. 기계는 사라져 미래의 시간 속으로 넘어가 눈앞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오. 그러니 똑똑히 지켜보시오. 탁자도 잘 살펴보고, 이게 속임수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확인해 두란 말이오. 공들여 만든 모형을 낭비하고 나서, 내가 돌팔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심리학자가 나에게 말을 걸려는 듯하더니 이내 마음을 바꾼 것 같았다. 그때 시간 여행자가 레버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아니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손을 좀 빌려주십시오.” 시간 여행자는 심리학자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그의 손을 맞잡고 검지를 내밀라고 말했다. 결국 모델 타임머신을 끝없는 여정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은 심리학자 자신이었다. 우리 모두는 레버가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결코 눈속임이 아니었다고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고 등불의 불꽃이 일렁였다. 벽난로 선반 위에 있던 양초 하나가 꺼졌다. 그 찰나에 작은 기계가 갑자기 회전하며 형체가 흐릿해지더니, 마치 희미하게 반짝이는 황동과 상아의 소용돌이처럼 아주 잠깐 유령처럼 보였다가 이내 사라져 버렸다. 완전히 증발한 것이다. 등불을 제외하면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잠시 동안 모두가 침묵했다. 그러다 필비가 "이런 빌어먹을" 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심리학자가 멍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더니, 갑자기 테이블 밑을 들여다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시간 여행자는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심리학자의 반응을 떠올리며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담배 통으로 향했다. 그는 우리를 등진 채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빤히 응시했다. “이보게,” 의사가 말했다. “진심인가? 정말로 그 기계가 시간을 가로질러 여행했다고 믿는 건가?”

“물론입니다.” 시간 여행자가 불꽃을 옮겨 붙이려 몸을 굽히며 말했다. 그러고는 파이프에 불을 붙인 뒤, 심리학자의 얼굴을 살피려 몸을 돌렸다. (심리학자는 자신이 제정신임을 증명하려는 듯, 시가 하나를 집어 들고는 끝도 자르지 않은 채 불을 붙이려 애썼다.) “게다가 저 안에는 거의 다 완성된 커다란 기계가 있습니다.” 그는 실험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 기계가 조립되면, 저 혼자서라도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그 기계가 미래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말씀인가요?” 필비가 물었다.

“미래로 갔는지 과거로 갔는지, 그건 나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심리학자가 문득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다. “어디로든 갔다면, 분명 과거로 갔을 겁니다.”

“어째서입니까?” 시간 여행자가 물었다.

“그것은 공간상에서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미래로 이동했다면, 이 시간들을 통과해 왔을 것이기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했다. “만약 타임머신이 과거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보였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가 여기 있었을 때도, 그 전 목요일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보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대한 의미가 있군요.” 지방 시장이 시간 여행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마치 공정한 태도를 취하려는 듯이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여행자가 말했다. 그리고는 심리학자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역치 아래의 제시, 즉 희석된 제시니까요.”

“물론입니다.” 심리학자가 우리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건 아주 단순한 심리학적 원리에요. 저라도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명쾌한 논리이고, 이 역설을 아주 흥미롭게 뒷받침해 주기도 하죠. 회전하는 바퀴살이나 공중을 가르는 총알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타임머신을 볼 수도, 그 존재를 실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우리보다 50배 혹은 100배 더 빠르게 시간을 가로질러 움직인다면, 우리가 1초를 보내는 동안 타임머신은 이미 1분을 지나쳐 버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타임머신이 만들어내는 인상은, 만약 타임머신이 시간을 가로질러 움직이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50분의 1이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아주 명백한 이치지요.” 그는 타임머신이 놓여 있던 빈 공간 위로 손을 휘저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멍하니 비어 있는 탁자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 시간 여행자가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오늘 밤에는 꽤 그럴싸하게 들리는군요.”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내일까지 기다려 봅시다. 아침이 되어 상식적인 판단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요.”

“타임머신을 직접 보고 싶으신가요?”

시간 여행자가 물었다. 그는 손에 든 등불을 들고, 외풍이 몰아치는 긴 복도를 지나 자신의 실험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다. 일렁이는 등불 빛과 실루엣으로 비친 그의 기묘하고 넓적한 머리, 춤추는 그림자들. 우리는 당혹스러우면서도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를 뒤따랐다. 실험실에 도착하자,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던 그 작은 장치의 거대한 판본이 그곳에 놓여 있었다.

장치의 부품들은 일부는 니켈, 일부는 상아로 되어 있었고, 어떤 부분은 분명 수정을 줄로 갈거나 톱으로 잘라낸 것이었다. 전체적으로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나, 뒤틀린 결정체 막대들은 도면 몇 장과 함께 작업대 위에 미완성 상태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더 자세히 보려고 막대 하나를 집어 들었다. 석영인 듯했다.

“이보게,” 의사가 말했다. “정말 진심인가? 아니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보여준 그 유령처럼, 우리를 골탕 먹으려는 장난인가?”

“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탐험할 생각입니다.” 시간 여행자가 등불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제 말이 명확히 전달되었나요? 저는 지금 생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나는 의사의 어깨 너머로 필비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를 향해 엄숙하게 윙크를 해 보였다.

제III장

시간 여행자가 돌아왔다.

그 당시 우리 중 누구도 타임머신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던 것 같다. 사실 시간 여행자는 너무 영리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를 보고 있으면 결코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명쾌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듯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늘 교묘하게 감춰둔 속내나 무언가 기발한 속임수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의구심이 들었다. 만약 필비가 시간 여행자의 방식대로 모형을 보여주며 설명했더라면, 우리는 그에게 훨씬 덜 회의적이었을 것이다. 필비의 동기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육점 주인이라도 필비가 왜 그러는지쯤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 여행자는 성격에 변덕스러운 기질이 다분히 섞여 있었고,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이 했다면 명성을 얻었을 일들도, 그의 손에 들어가면 마치 속임수처럼 보였다. 일을 너무 손쉽게 해치우는 것은 실수다. 그를 진지하게 대했던 사람들도 그의 태도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그를 상대하면서 자신들의 판단력에 대한 평판을 거는 일이, 마치

유아용 놀이방에 달걀껍데기처럼 얇은 도자기를 들여놓는 것만큼이나 위태롭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목요일부터 그다음 목요일 사이의 기간 동안, 우리 중 누구도 시간 여행에 대해 별다른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물론 시간 여행이 가진 기묘한 잠재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분명 마음속으로 곱씹고 있었을 것이다. 즉,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면서도 실제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시대착오와 극심한 혼란이라는 기이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 모형을 이용한 속임수에 특히 마음이 끌려 있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린네 학회에서 만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의사는 튜빙겐에서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촛불이 꺼지는 대목을 매우 강조했다. 하지만 그 속임수를 어떻게 부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도 설명하지 못했다.

다음 주 목요일, 나는 다시 리치먼드를 방문했다. 아마도 나는 시간 여행자의 가장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조금 늦게 도착하니, 그의 거실에는 이미 네다섯 명의 남자가 모여 있었다. 의사는 한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다른 한 손에는 회중시계를 든 채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시간 여행자가 어디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벌써 7시 반이군요.” 의사가 말했다. “이제 저녁이라도 먹는 게 좋겠지요?”

“우리 집주인은 어디 계시지?” 내가 물었다.

“방금 오신 건가요? 좀 이상하군요. 그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이 쪽지를 남기며, 혹시라도 제때 돌아오지 못하면 저더러 일곱 시에 먼저 저녁 식사를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돌아오면 다 설명하겠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식어버리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유명 일간지의 편집장이 말하자, 의사가 벨을 눌렀다.

의사와 나를 제외하고 지난번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은 심리학자뿐이었다. 다른 참석자들은 앞서 언급한 편집자인 블랭크, 어떤 기자, 그리고 수염을 기른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남자 한 명이었다. 나는 그 남자를 몰랐는데,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는 저녁 내내 단 한 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식탁에서는 시간 여행자가 왜 오지 않는지를 두고 이런저런 추측이 오갔다.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간 여행 중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던졌다. 편집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라고 재촉했고, 심리학자는 우리가 일주일 전 그날 목격했던 '기발한 역설과 속임수'에 대해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심리학자가 한창 설명을 이어가던 중, 복도 쪽 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렸다. 문을 마주 보고 있던 내가 가장 먼저 그 광경을 보았다.

"어!" 내가 말했다. "드디어 오셨군요!"

문이 더 넓게 열리더니 시간 여행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이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다음으로 그를 발견한 의사가 외쳤다.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몰골이었다. 코트는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고, 소매에는 초록색 얼룩이 길게 번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는데, 내 눈에는 평소보다 더 희끗해 보였다. 먼지와 오물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머리색이 바래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유령처럼 질려 있었고, 턱에는 반쯤 아문 갈색 상처가 나 있었다. 표정은 마치 극심한 고통을 겪은 듯 수척하고 헐쭉했다. 그는 잠시 문가에 멈춰 섰는데, 마치 눈부신 빛에 눈이 멀기라도 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길을 헤매다 발이 부르튼 부랑자처럼 절뚝거리며 걸었다. 우리는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며 침묵 속에 그를 응시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통스러운 기색으로 테이블까지 걸어와 와인을 가리켰다. 편집자가 샴페인을 잔에 채워 그에게 밀어주었다. 그는 잔을 단숨에 비웠다. 술기운이 몸에 도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들을 둘러보았고, 예전의 미소가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대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가?” 의사가 물었다.

시간 여행자는 듣지 못한 듯했다.

“방해하려는 건 아니네.” 그가 다소 더듬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난 괜찮아.”

그는 말을 멈추고 술을 더 받으려는 듯 잔을 내밀었다가, 그대로 술을 들이켰다.

“이제 좀 살 것 같군.” 그가 말했다.

그의 눈빛이 점차 생기를 되찾았고, 창백하던 뺨에도 옅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들의 얼굴을 멍한 듯 만족스럽게 훑어보더니, 이내 따뜻하고 안락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더듬어 고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올게.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전부 설명하겠네. ……양고기 좀 남겨두게나. 고기가 너무 먹고 싶군.”

그는 좀처럼 보기 힘든 손님인 편집자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가 잘 지내는지 안부를 건넸다. 편집자가 질문을 던지려 하자 시간 여행자가 말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이상해서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계단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그가 절뚝거리는 모습과 발을 끌며 걷는 부드러운 소리에 다시금 주목했다. 나도 자

리에서 일어나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발에는 해지고 피가 묻은 양말 한 켤레뿐이었다. 이윽고 문이 닫혔다. 나도 따라 나갈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가 남의 관심을 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떠올리고는 그만두었다. 잠시 동안 내 정신은 멍하니 딴 데로 가 있었다. 그때 편집자가 평소처럼 신문 헤드라인을 구상하듯 "저명한 과학자의 기이한 행동"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나는 다시 환하게 빛나는 저녁 식탁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자라고 불리는 남자가 물었다. “그가 또 구걸이라도 하고 다닌 건가요? 도통 이해가 안 가는군요.” 나는 심리학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방금 느낀 의구심이 그대로 읽혔다. 나는 고통스러운 듯 다리를 절며 계단을 올라가던 시간 여행자를 떠올렸다. 그의 절뚝거림을 알아챈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이 놀라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평정을 되찾은 사람은 의사였다. 그는 벨을 눌러 따뜻한 요리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시간 여행자는 저녁 식사 중에 하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 소리에 편집자는 꿈 소리를 내며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고, 침묵하던 사내도 그 뒤를 따랐다. 식사가 다시 재개되었다. 한동안 대화는 경탄 섞인 감탄사와 의아함이 뒤섞인 침묵으로 이어졌고, 이윽고 편집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 친구가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해서 그 적은 수입을 메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무슨 느부갓네살처럼 광기에 빠진 건가?” 편집자가 물었다.

“분명 타임머신 때문일 겁니다.” 내가 대답하며, 지난번 모임에 대해 심리학자가 기록한 내용을 꺼내 들었다.

새로 온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믿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편집자는 반론을 제기했다. “시간 여행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모순 속을 뒹군다고 해서 몸에 먼지가 묻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더니 그는 상황이 실감 나기 시작했는지 회화화하기 시작했다. 미래에는 옷솔조차 없느냐는 식이었다. 기자 역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편집자와 합세하여 이 모든 상황을 손쉽게 조롱해 댔다. 두 사람 모두 경박하고 거침없는 요즘 젊은 기자들이었다.

“내일모레의 특파원이 보고하기를—” 기자가 소리치다시피 말하고 있을 때, 시간 여행자가 돌아왔다. 그는 평범한 저녁 예복 차림이었고,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변화의 흔적은 초췌한 안색 외에는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이보게,” 편집자가 유쾌하게 말을 건넸다. “여기 있는 친구들 말로는, 자네가 다음 주 중반까지 여행을 다녀왔는지 않나! 어린 로즈베리에 대해서도 전부 들려주게나, 응?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대가로 얼마를 받겠나?”

시간 여행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양고기는 어디 있나?” 그가 말했다. “다시 고기를 포크로 찢어 먹을 수 있다니, 정말이지 큰 즐거움이군!”

“이야기해 보게!” 편집자가 외쳤다.

“이야기 따위는 집어치워요!” 시간 여행자가 말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못 견디겠군. 혈관에 영양분이 좀 돌기 전까지는 입도 뻥긋하지 않겠소. 고맙소. 소금도 좀 주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혹시 시간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시간 여행자가 입안에 음식을 가득 문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받아 적을 수만 있다면 한 줄에 1실링 씩이라도 내겠네.” 편집자가 말했다. 시간 여행자는 침묵하는 사내 쪽으로 잔을 밀어 놓더니 손톱으로 잔을 톡 건드렸다. 그러자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침묵하는 사내가 움찔하며 놀라더니, 서둘러 그에게 와인을 따랐다. 남은 저녁 식사 시간은 불편함의 연속이었다. 나 역시 입가에 갑작스러운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는데,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기자 양반은 헤티 포터에 관한 일화를 늘어놓으며 긴장을 풀어보려 애썼다. 시간 여행자는 오로지 식사에만 열중하며, 마치 며칠을 굶은 부랑자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웠다. 의사는 담배

를 피우며 속눈썹 사이로 시간 여행자를 유심히 살폈다. 침묵하는 사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서투른 몸짓을 보였고, 극도의 긴장감 때문인지 삼페인을 규칙적이고도 단호하게 들이켰다. 마침내 시간 여행자가 접시를 밀어 놓으며 우리를 둘러보았다. “사과부터 드려야겠군요.” 그가 말했다. “그저 너무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왔거든요.” 그는 시가를 집어 들어 끝을 잘라냈다. “자, 흡연실로 옮깁시다. 기름기 묻은 접시를 앞에 두고 하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니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벨을 울리고는 옆방으로 앞장서 나갔다.

“블랭크와 대시, 그리고 초스에게도 그 기계에 대해 이야기했나?”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며 세 명의 새로운 손님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하지만 그건 그저 역설일 뿐이잖아요.” 편집자가 말했다.

“오늘 밤은 논쟁할 기운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괜찮지만, 논쟁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드릴게요.” 그가 말을 이었다. “원하신다면 제게 일어난 일을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말을 끊지는 말아 주십시오.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말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거짓말처럼 들릴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 한 마디도 빠짐없이 전부 사실이란 말입니다. 저는 네 시에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여드레를 살았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여드레를 말입니다! 몸은 거의 녹초가 되었지만, 이 일을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잠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잠

자리에 들겠어요. 하지만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편집자가 말하자, 나머지 우리도 “좋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 말을 끝으로 시간 여행자는 내가 앞서 서술한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지친 기색으로 말을 꺼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이 이야기를 글로 옮기면서 나는 펜과 잉크,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아마 당신은 이 글을 충분히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가겠지만, 작은 등불이 비추는 환한 원 안에서 화자의 하얗고 진실한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어조를 들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그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당신은 결코 알 수 없다. 흡연실의 촛불을 켜지 않았기에 청중 대부분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기자와 침묵하는 사람의 무릎 아래 다리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도 가끔 서로의 눈치를 살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행동을 멈추고 오직 시간 여행자의 얼굴만을 응시했다.

제IV장

시간 여행

지난 목요일, 나는 여러분 중 몇몇에게 타임머신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작업실에 미완성 상태로 놓여 있던 실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물건이 저기 있습니다. 정말이지 여행의 흔적이 역력하군요. 상아 막대 하나는 금이 갚고 황동 난간도 휘어졌지만,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견고합니다. 금요일까지는 작업을 마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립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니켈 막대 하나가 정확히 1인치 짧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막대를 새로 제작해야 했고, 덕분에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타임머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최초의 타임머신이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가볍게 두드려 점검하고 나사를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수정 막대에 기름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린 뒤, 안장에 올라앉았습니다.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 자살자가 다음에 벌어질 일을 기다리며 느끼는 경이로움이, 그때 내가 느낀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한 손에는 출발 레버를, 다른 한 손에는 정지 레버를 쥐었습니다. 출발 레버를 누르고 거의 곧바로 정지 레버를 눌렀습니다. 몸이 비틀거리는 듯했고, 마치 추락하는 것 같은 악몽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실험실은 이전과 다른없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잠시 내 지성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10시를 갓 넘긴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벌써 3시 30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어금니를 꼭 깨문 뒤, 양손으로 출발 레버를 움켜쥐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실험실 풍경이 흐릿해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와칫 부인이 들어와서는, 나를 보지 못한 듯 정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그곳을 가로지르는데 1분쯤 걸린 것 같았지만, 내 눈에는 마치 로켓처럼 방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레버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밤은 마치 등불을 끄듯 순식간에 찾아왔고, 곧이어 내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실험실의 형체는 희미하고 흐릿해지더니, 점점 더, 갈수록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내일 밤이 칙흑처럼 찾아왔다가 다시 낮이 오고, 다시 밤이 오고, 다시 낮이 왔으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듯한 웅성거림이 귓가를 채웠고, 기묘하고 명한 혼란이 정신에 내려앉았습니다.

“시간 여행을 할 때 느끼는 그 기묘한 감각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불쾌하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속수무책으로 앞을 향해 내동댕이쳐지는 듯

한 느낌이 듭니다. 곧 무언가와 세계 충돌할 것만 같은 끔찍한 예감도 들었지요.

속도를 높이자 밤과 낮이 마치 검은 날갯짓처럼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실험실의 모습은 곧 멀어지더니,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켑충켑충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양은 매 분마다 하늘을 건너뛰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루를 나타냈습니다. 실험실은 이미 파괴되었고, 나는 탁 트인 야외로 나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계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지만, 이미 속도가 너무 빨라 움직이는 것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기어가는 달팽이조차 내 눈에는 너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빛과 어둠이 번쩍이며 교차하는 광경은 눈에 극심한 통증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간헐적인 어둠이 찾아올 때면, 달이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변하며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과 공전하는 별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속도가 점점 더 붙으면서, 밤과 낮이 요동치던 모습은 이내 하나의 연속적인 회색빛으로 합쳐졌습니다. 하늘은 이른 황혼 무렵처럼 경이롭고 깊은 푸른빛을 띠며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덜컥거리며 움직이던 태양은 우주 공간에 그려진 불꽃의 줄기이자 눈부신 호가 되었고, 달은 희미하게 일렁이는 띠가 되었습니다. 별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가끔 푸른 하늘 속에서 더 밝은 원형의 빛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풍경은 안개에 싸여 흐릿하고 모호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이 서 있는 언덕 위에 그대로 있었고, 산등성이가 회색빛을 띤 채 어렴풋이

머리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피어오르는 수증기처럼 자라났다 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때는 갈색이었다가, 어떤 때는 초록색이 되었지요. 나무들은 자라나고, 뻗어 나가고, 떨리듯 흔들리다가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희미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솟아올랐다가, 마치 꿈처럼 스러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구의 표면 전체가 변해 가는 듯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대지가 녹아내리고 흘러가는 것만 같았지요. 속도를 기록하는 계기판의 작은 바늘들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나는 태양이 하지와 동지를 오가며 1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 결과 내 속도가 1분에 1년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 분마다 하얀 눈이 세상을 가로질러 번쩍이며 나타났다 사라졌고, 그 뒤를 봄의 밝고 짧은 초록빛이 뒤따랐습니다.

“출발할 때의 그 불쾌한 감각은 이제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다. 그 감각들은 마침내 일종의 발작적인 들뜬 기분으로 뒤섞였지요. 사실 나는 타임머신이 영문 모를 만큼 서투르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너무 혼미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겨를이 없었고, 점점 더해 가는 광기에 휩싸인 채 미래를 향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멈춰야겠다는 생각조차 거의 들지 않았고, 이 새로운 감각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새로운 인상들이 머릿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호기심과 함께 어떤 두려움이 밀려왔고, 마침내 그 감정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눈앞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요동치는 저 희미하고도 붙잡히지 않는 세계를 가까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인류는 얼마나 기이하게 변해 있을까, 우

리의 미개한 문명으로부터 얼마나 경이로운 진보를 이루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변으로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 어떤 건물보다도 웅장했지만, 마치 어른거리는 빛과 안개로 지어진 것처럼 보였지요. 산비탈을 따라 더욱 짙은 초록빛이 차올라, 겨울의 중단도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신의 장막을 통해서도 지구는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나는 타임머신을 멈추는 일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위험이 하나 있었다. 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 혹은 타임머신이 차지한 공간 안에 어떤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었다. 시간을 가로질러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나는 희박해진 상태였고, 마치 증기처럼 물질 사이의 틈새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멈춰 서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 몸이 분자 단위로 앞길을 가로막는 물질 속에 끼어 버릴 수도 있었다. 내 원자가 장애물의 원자와 너무나 밀접하게 맞닿아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어쩌면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나와 타임머신은 모든 차원에서 사라져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 버릴 터였다.

타임머신을 만드는 동안에도 이런 가능성을 몇 번이고 떠올렸다. 하지만 그때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즉 사람이 감수해야 할 위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막상 그 위험이 눈앞에 닥치자 더 이상 예전처럼 낙관적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사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생경함과 타임머신의 불쾌한 진동, 그리고 무엇보다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기분 때문에 내 신경은 이미 완전히 곤두서 있었다. 나는 결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면서도 핫김에 당장 멈춰버리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참을성 없는 바보처럼 레버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러자 기계가 즉시 요동치며 돌아갔고, 나는 공중으로 머리부터 내팽개쳐졌다.

꺾가에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다. 무자비한 우박이 내 주변에서 쉴쉴 소리를 내며 쏟아졌고, 나는 뒤집힌 타임머신 앞에 놓인 부드러운 잔디 위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잿빛으로 보였으나, 곧 귀를 어지럽히던 혼란이 가라앉았음을 깨달았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마치 정원의 작은 잔디밭 같은 곳에 와 있었다. 주변은 만병초 덩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우박이 내리치는 충격에 연보라색과 보라색 꽃송이들이 비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튀어 오르며 춤추는 우박은 타임머신 위로 작은 구름처럼 머물다가, 연기처럼 지면을 따라 흩어졌다.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참으로 극진한 대접이군. 당신들을 만나려고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달려온 사람에게 말이야.”

곧 나는 몸을 적시고 있는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뿌연 빗줄기 너머, 만병초 덩굴 사이로 흰 돌을 깎아 만든 듯한 거대한 형상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외에 세상의 다른 모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쏟아지던 우박의 기둥이 점차 가늘어지자, 하얀 형체가 더욱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거대했다. 은빛 자작나무 한 그루가 그 형체의 어깨에 닿을 정도였으니까.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은 날개 달린 스팅크스와 비슷했다. 다만 날개가 양옆으로 수직으로 뻗어 있는 대신, 마치 허공을 떠다니는 것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받침대는 청동으로 된 듯했는데, 녹이 슬어 푸른빛이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은 좋게도 그 형상의 얼굴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마치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고, 입술에는 희미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너무 많이 겪은 탓인지,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병적인 느낌을 주어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한동안 그 형상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30초였을까, 아니면 30분이었을까. 우박이 거세게 몰아치거나 잦아들 때마다 형체는 다가왔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듯했다. 마침내 나는 잠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우박의 장막이 걷히고, 곧 해가 뜰 듯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웅크린 채 있는 저 하얀 형체를 다시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내가 감행한 여정의 대담함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다. 저 흐릿한 장막이 완전히 걷히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인류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만약 잔혹함이 인류의 보편적인 열정으로 자리 잡았다면 어찌나? 만약 그 시간 동안 인류가 인간다운 기개를 잃어버리고, 비인간적이며 냉혹하고, 압도적인 힘을 지닌 무언가로 변해버렸다면 어찌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구시대의 야만적인 짐승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우리와 닮았다는 이유

만으로 더욱 끔찍하고 역겨운 존재, 즉 마주치는 즉시 죽여 없애야 할 불결한 괴물로 말이다.

이미 다른 거대한 형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복잡한 난간과 높은 기둥이 달린 거대한 건물들이 나타났고, 잣아드는 폭풍 사이로 숲이 우거진 언덕이 희미하게 다가왔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미친 듯이 타임머신으로 달려가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 필사적으로 애를 썼다.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 폭풍우를 뚫고 햇살이 내리쬘었다. 회색빛 폭우는 마치 유령의 옷자락처럼 흩어지며 사라졌다. 머리 위 여름 하늘의 질푸른 빛 속에서는 연갈색의 옅은 구름 조각들이 소용돌이치며 허공으로 흩어져 갔다. 주변의 거대한 건물들은 폭풍우에 젖어 번뜩이며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건물 틈새마다 쌓인 녹지 않은 우박이 하얗게 빛나며 건물의 윤곽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낮선 세계에 홀로 던져진 나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기분이었다. 마치 맑은 하늘 위에서 매가 내려다보며 덮칠 것을 아는 새가 느끼는 기분과도 같았다. 공포는 광기로 변해갔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고는, 다시 한번 손목과 무릎을 다 써가며 기계와 격렬하게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나의 필사적인 공격에 기계는 버티지 못하고 뒤집히고 말았다. 기계가 내 턱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나는 한 손은 안장에, 다른 한 손은 레버에 얹은 채, 다시 올라탈 자세를 취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즉시 퇴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용기가 되살아났다. 나는 공포를 떨쳐내고, 머나먼 미래의 이 세계를 조금 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가까운 저택의 높은 벽에 난 둥근 창문 너머로, 부

드럽고 화려한 예복을 입은 무리가 보였다. 그들은 나를 발견했고,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흰 스팅크스 옆 덩불 사이로 달려오는 사람들의 머리와 어깨가 보였다. 그중 한 명이 내가 타임머신과 함께 서 있는 작은 잔디밭으로 곧장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나타났다. 그는 키가 4피트 정도 되어 보이는 왜소한 체구였으며, 허리에 가죽 벨트를 맨 보랏빛 튜닉을 입고 있었다. 발에는 샌들을 신었는지 반장화를 신었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었으나, 무릎까지는 다리가 드러나 있었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였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나는 공기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는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존재라는 인상을 주었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 보였다. 상기된 그의 얼굴을 보니, 예전에 자주 들던 결핵 환자 특유의 그 화사한 아름다움이 떠올랐다. 그를 보자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타임머신에서 손을 뗐다.

제V장

황금시대에

잠시 후, 나는 미래에서 온 이 연약한 존재와 마주 서게 되었다. 그는 내게 곧장 다가오더니 내 눈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태도에서 두려움의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즉각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러고는 뒤따라오던 다른 두 명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낯설면서도 매우 달콤하고 매끄러운 언어로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다른 이들도 다가오고 있었다. 곧 여덟 명에서 열 명쯤 되어 보이는 이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내 주변을 에워쌌다. 그중 한 명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묘하게도, 내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너무 거칠고 낮게 들린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은 뒤, 내 귀를 가리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내 손을 만졌다. 그러자 등과 어깨에도 부드럽고 작은 손길들이 느껴졌다. 내가 실재하는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전혀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예쁘장한 이들에게서는 신뢰를 주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우아한 부드러움과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너무나 연약해 보여서, 그 열댓 명을 마치 볼링 핀처럼 가볍게 이리저리 내던질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다 그들의 작은 분홍빛 손이 타임머신을 더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에게 경고하려고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다행히 너무 늦기 전에,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위험이 떠올랐다. 나는 타임머신의 창살 너머로 손을 뻗어, 기계를 작동시키는 작은 레버들을 풀어낸 뒤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들을 살폈다.

그다음 그들의 얼굴을 더 가까이서 살펴보니, 드레스덴 자기 인형처럼 예쁘장한 생김새 속에 몇 가지 기묘한 특징이 더 눈에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모두 곱슬거렸는데, 목과 뺨 근처에서 아주 날카롭게 잘려 나간 듯한 모양이었다. 얼굴에는 잔머리 하나 보이지 않았고, 귀는 유난히도 작았다. 입은 작았으며, 입술은 얇고 선명한 붉은빛을 띠었다. 작은 턱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졌다. 눈은 크고 순해 보였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자칫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그들의 눈빛에는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흥미나 호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들은 나와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주위에 둘러서서 서로를 향해 부드럽고 달콤한 소리로 속삭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 나는 타임머신과 나 자신을 차례로 가리켰다. 그러고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태양을 가리켰다. 그러자 보라색과 흰색이 체크무늬로 섞인, 기묘하게 예쁘장한 작은 형체가 내 손짓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더니 곧 천둥소리를 흉내 내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의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나는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다. 문득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생명체들은 바보인가?' 그 질문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여러분은 아마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80만 2천 년 뒤의 인류가 지식과 예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을 것이라고 늘 기대해 왔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우리 시대의 다섯 살 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질문이었다. 사실 그는 내가 뇌우가 몰아치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 순간, 그들의 옷차림과 가냘픈 팔다리, 그리고 연약한 이목구비를 보며 애써 유보해 두었던 판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실망감이 파도처럼 내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내가 타임머신을 만든 것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양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천둥소리를 어찌나 생생하게 흉내 냈던지, 그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한 걸음쯤 뒤로 물러나더니 내게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그때 한 명이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 손에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꽃들을 엮어 만든 줄이 들려 있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내 목에 걸어 주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노래하듯 박수를 쳤다. 이내 모두가 꽃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웃음 섞인 손길로 꽃을 내게 던져댔다.

꽃더미에 파묻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런 광경을 본 적 없는 이들
이라면, 수없이 흐른 세월 동안의 재배를 거쳐 탄생한 그 섬세하고 경
이로운 꽃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누군가 그들의 장난감(곧 나)을 근처 건물에 전시하자고 제안
했다. 나는 사람들을 따라 흰 대리석으로 된 스프링크스상을 지나 거대한
회색 석조 건물로 향했다. 스프링크스는 내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내내 미
소 띠며 지켜보는 듯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나는 문득 과거의 내
확신을 떠올렸다. 인류의 후손이 매우 엄숙하고 지적인 존재일 것이라
믿었던 나의 기대가, 견잡을 수 없는 즐거움과 함께 머릿속을 스쳐 지
나갔다.

건물 입구는 거대했고, 건물 전체가 압도적일 만큼 거대한 규모였
다. 나는 자연히 점점 늘어나는 작은 사람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내 앞에는 그림자처럼 어둡고 신비로운 대형 입구들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그들의 머리 너머로 보이는 세상에 대한 나의 전반적인 인상
은, 아름다운 관목과 꽃들이 뒤엉킨 황무지 같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으나 잡초 하나 없이 잘 가꾸어진 정원 같기도 했다. 나는
기이한 흰 꽃들이 길쭉한 꽃대를 세운 채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밀랍
같은 꽃잎을 펼친 나비가 한 자 정도는 되어 보였다. 그 꽃들은 형형색
색의 관목들 사이에서 마치 야생화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피어 있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당시에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타
임머신은 진달래 덩굴 사이 잔디밭 위에 버려진 듯 놓여 있었다.

문틀의 아치는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지나가면서 그 조각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고대 페니키아 양식의 장식이 가미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만 조각들이 매우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풍파에 깎여 나갔다는 생각은 들었다. 문턱에서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몇 명 더 나를 맞이했고,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칙칙한 19세기의 옷을 입은 내 모습은 꽤나 기괴해 보였을 것이다. 꽃으로 장식된 채, 화사하고 부드러운 색채의 옷자락과 빛나는 하얀 팔다리가 소용돌이치듯 내 주변을 에워쌌다. 그들 사이로 감미로운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가 어우러져 휘몰아쳤다.

커다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에 걸맞게 거대한 홀이 나타났다. 홀안은 온통 갈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천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색유리가 부분적으로 끼워진 창문들은 나머지 빈틈을 통해 은은한 빛을 들여보냈다. 바닥은 아주 단단한 백색 금속으로 만든 거대한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판이나 판석이 아니라, 커다란 덩어리였다. 수많은 세대가 그 위를 오가며 남긴 흔적을 보니,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은 바닥이 깊게 파여 있었다. 홀의 길이 방향을 가로질러는 연마된 석판으로 만든 수많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는 바닥에서 한 자 정도 높이로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과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어떤 것들은 비대하게 커진 라즈베리나 오렌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부분은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모습이었다.

탁자들 사이에는 수많은 쿠션이 흩어져 있었다. 나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 쿠션 위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나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격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으로 과일을 집어 먹기 시작

했다. 그러고는 껍질과 줄기 같은 것들을 탁자 옆면에 뚫린 둥근 구멍 속으로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나 역시 목이 마르고 허기가 절기에 기꺼이 그들을 따라 했다.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나는 여유롭게 홀 안을 둘러보았다.

아마도 내 눈길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그곳의 퇴락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기하학적 문양만을 그려 넣은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은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아래쪽에 드리워진 커튼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내 근처에 놓인 대리석 탁자의 모서리가 갈라져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풍기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그림 같았다. 연회장에는 아마도 이백 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내 근처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와 앉아 흥미진진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먹고 있는 과일 너머로 작은 눈을 반짝였다. 모두가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실크 같은 옷감을 입고 있었다.

참고로 그들의 식단은 온통 과일뿐이었다. 아득한 미래에 사는 이들은 엄격한 채식주의자였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나는 육식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며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해야만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말과 소, 양, 그리고 개 같은 동물들도 익티오사우루스를 따라 이미 멸종해 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과일은 아주 맛이 좋았다. 특히 내가 머무는 내내 제철인 듯 보였던, 세 갈래 껍질에 싸인 가루 같은 열매가 있었는데, 그 맛이 유독 일품이라 나는 그것을 주식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이 생소한 과일들과 기이한 꽃들을 보며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들이 품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먼 미래에서 맛본 과일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허기를 어느 정도 달라고 하니, 나는 이 새로운 인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단호하게 노력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다음에 해야 할 명확한 일이었다. 과일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기에 아주 적절한 소재 같았다. 나는 과일 하나를 들어 보이며 질문을 던지는 듯한 소리와 몸짓을 반복했다.

내 뜻을 전달하는 일은 꽤나 어려웠다. 처음에는 나의 시도에 놀라 멍하니 바라보거나,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곧 금발의 작은 생명체 하나가 내 의도를 알아챈 듯 어떤 이름을 반복해서 말했다. 그들은 서로 재잘거리며 상황을 아주 길게 설명해야만 했다. 내가 그들의 언어에 담긴 정교하고 작은 소리들을 흉내 내려 애쓸 때마다, 그들은 예의를 차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즐거워하며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마치 아이들 사이에 놓인 교사가 된 기분으로 끈기 있게 매달렸다. 머지않아 나는 적어도 스무 개 정도의 명사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지시 대명사와 '먹다'라는 동사까지 익혔다. 그러나 진척은 더뎠다. 작은 사람들은 금세 지쳐서 나의 질문 공세를 피해 달아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마음 내킬 때마다 조금씩 가르쳐 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 주는 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그토록 게으르고 쉽게 지치는 이들은 없었기 때문이다.

제VI장

인류의 황혼

곧 나의 작은 주인들에 대해 기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그들은 도무지 흥미가 없었다. 그들은 아이들처럼 경탄 섞인 외침을 내지르며 내게 다가왔지만, 아이들답게 금세 나를 살피는 일을 멈추고는 다른 장난감을 찾아 떠나버리곤 했다. 저녁 식사와 첫 대화 시도가 끝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처음에 내 주변을 에워쌌던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이미 자리를 떴다는 점이었다. 또한 내가 이 작은 사람들을 얼마나 빨리 무시하게 되었는지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배를 채우자마자 나는 다시 입구를 지나 햇살이 내리쬐는 세상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나는 미래의 인류를 끊임없이 마주쳤다. 그들은 내 곁을 잠시 따라오며 나를 두고 재잘거리고 웃어댔다. 그리고는 친근하게 미소 짓거나 손짓을 해 보인 뒤, 다시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갔다.

대강당을 나서자 세상에는 저녁의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고, 지는 해의 따스한 잔광이 풍경을 비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척 혼란스러웠다. 꽃들조차 내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내가 떠난 거대한 건물은 넓은 강 계곡의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템스강은 아마도 지금의 위치에서 1마일쯤 자리를 옮긴 듯했다. 나는 약 1.5마일 떨어진 언덕 정상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 올라야 서기 802,701년의 이 지구를 더 넓게 조망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말해두자면, 그 날짜는 내 타임머신의 작은 계기판에 기록되어 있던 날이었다.

나는 걸음을 옮기며 내가 마주한 세상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 세상은 황폐하면서도 찬란한 영광이 서린 모습이었는데, 분명 황폐한 상태였다. 예를 들어, 언덕을 조금 올라가니 거대한 화강암 더미가 보였다. 그 화강암들은 알루미늄 덩어리들에 엉겨 붙어 있었고, 가파른 벽과 구겨진 듯 쌓인 잔해들이 거대한 미로를 이루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는 마치 탐처럼 생긴 아주 아름다운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아마도 췌기풀의 일종일 테지만, 잎사귀가 갈색으로 신비롭게 물들어 있어 쏘는 성질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것은 분명 어떤 거대한 구조물이 남긴 폐허였으나,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훗날 나는 바로 이곳에서 매우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훨씬 더 기묘한 발견을 예고하는 첫 번째 징조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적절한 때에 다시 하겠다.

잠시 테라스에 기대어 쉬던 나는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눈에 띄는 작은 집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보아하니 개별 주택은, 어쩌면 가정이라는 단위 자체까지도 사라진 듯했다. 푸른 녹음 사이로 궁전 같은 건물들이 여기저기 보였지만, 우리 영국 풍경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주택이나 작은 오두막은 어디에도 없었다.

“공산주의로군.”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곧이어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나를 뒤따라오는 대여섯 명의 작은 형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찰나의 순간, 그들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옷을 입고 있으며, 털 없는 부드러운 얼굴과 소녀처럼 통통한 팔다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진작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 생소했다. 이제야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의복의 차이나, 오늘날 남녀를 구분 짓는 질감과 태도의 차이조차 없이, 미래의 이 사람들은 모두 닮아 있었다. 내 눈에는 아이들이 마치 부모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시대의 아이들이 적어도 신체적으로는 발육이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판단했고, 나중에 내 생각이 옳았음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이들이 누리는 삶이 이토록 평온하고 안전한 것을 보며, 나는 남녀의 모습이 이토록 닮아 있는 것이 결국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남성의 강인함과 여성의 부드러움, 가족이라는 제도, 그리고 직업의 분화는 모두 물리적인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필연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절히 조절되고 풍족한 곳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국가에 축복이라기보다 오히려 해악이 된다. 폭력

이 드물게 일어나고 자손의 생존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효율적인 가족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아니, 애초에 필요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자녀의 필요에 맞춰 남녀의 역할이 전문화될 이유도 사라진다. 우리 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내가 마주한 미래 시대에는 그 현상이 완전히 완성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당시 내가 내린 추측일 뿐이었다. 나중에 나는 나의 이 생각이 실제 현상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돛 형태의 지붕 아래 놓인 우물처럼 생긴 작고 예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우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 묘하다고 잠시 생각했을 뿐, 이내 다시 사색에 잠겼다. 언덕 꼭대기 근처에는 커다란 건물도 없었다. 게다가 나의 걷는 속도가 워낙 경이로운 수준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나는 묘한 자유로움과 모험심을 느끼며 언덕 정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에서 나는 정체 모를 황색 금속으로 된 의자 하나를 발견했다. 곳곳에는 분홍빛 녹이 슬어 있었고, 부드러운 이끼가 반쯤 덮고 있었다. 팔걸이는 그리핀의 머리 모양을 본떠 주조한 뒤 정교하게 다듬은 형태였다. 나는 그 의자에 앉아, 길게 늘어진 그날의 석양 아래 펼쳐진 옛 세계의 광활한 풍경을 눈에 담았다. 내가 평생 보았던 풍경 중 가장 달콤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태양은 이미 지평선 아래로 넘어갔고, 서쪽 하늘은 황금빛 불꽃으로 타오르며 보랏빛과 진홍빛 줄무늬가 가로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발

아래로는 템스강 계곡이 펼쳐져 있었는데, 강물은 마치 잘 닦인 강철
띠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앞서 울긋불긋한 녹음 사이사이에 흠어져
있는 거대한 궁전들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어떤 것은 폐허가 되었고, 어
떤 것은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었다. 황량해진 지구의 정원 곳곳에서는
하얗거나 은빛을 띠는 형체들이 솟아 있었고, 돔이나 오벨리스크의 날
카로운 수직선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울타리도, 소유권을 나타내
는 표식도, 농경의 흔적도 없었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
되어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내가 본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했
다. 그날 저녁 내 머릿속에 정리된 해석은 대략 이러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다. 혹은 진실의 단 한 단면
만을 엿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인류가 저물어가는 광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붉게 물
든 노을을 보고 있자니, 인류의 황혼이 떠올랐다. 현재 우리가 매진하
고 있는 사회적 노력들이 가져올 기묘한 결과가 무엇인지, 나는 처음으
로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는 지극히 논리적인
귀결이었다. 강함은 결핍에서 비롯되지만, 안락함은 나약함에 보상을
안겨준다.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 즉 삶을 점점 더 안전하게 만
드는 진정한 문명화 과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마침내 정점에 도달했다.
인류가 자연을 상대로 거둔 승리가 승승장구하며 이어져 온 것이다. 지
금은 그저 꿈에 불과한 일들이 의도적인 계획이 되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다. 그리고 내가 목격한 것이 바로 그 노력의 결실이었다.

“결국 오늘날의 위생과 농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학은 인류 질병이라는 방대한 영역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매우 꾸준하고 끈기 있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원예 기술은 여기저기서 잡초를 뽑아내고 수십 종의 유익한 식물을 재배할 뿐, 나머지 대다수의 식물은 스스로 생존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호하는 동식물—비록 그 수가 매우 적긴 하지만—을 선택적 교배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갑니다. 더 새롭고 품질 좋은 복숭아를 만들고, 씨 없는 포도를 개발하며, 더 달콤하고 커다란 꽃을 피우고, 더 다루기 쉬운 가축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들을 점진적으로 개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이상이 아직 막연하고 불확실하며, 지식 또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 역시 우리의 서툰 손길 앞에서는 수줍음을 타듯 느리게 반응합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훌륭하게 조직될 것입니다. 소용돌이가 몰아칠지언정 시대의 흐름은 결국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온 세상은 지적이고 교육받은 상태로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혜롭고 신중하게, 인간의 필요에 맞춰 동식물의 생태적 균형을 재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했고,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내 타임머신이 도약해 넘어온 그 시간의 간극 속에서, 영겁의 세월 동안 말입니다. 공기 중에는 모기 한 마리 없었고, 땅 위에는 잡초나 곰팡이조차 자라지 않았습니다. 도처에 과일이 열려 있었고,

달콤하고 향긋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화려한 나비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예방 의학의 이상이 실현된 것입니다. 질병은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내가 머무는 동안 전염병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패와 부식의 과정조차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승리 또한 이루어진 듯했다. 인류는 화려한 거처에 살고 있었으며, 옷차림 또한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가 본 그들은 아직 어떤 노동도 하고 있지 않았다. 사회적 투쟁도, 경제적 투쟁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상점과 광고, 교통, 그리고 우리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상업 활동이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그 황금빛 저녁에 내가 이곳을 사회적 낙원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인구 증가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인구 또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나는 짐작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면 그 변화에 따른 적응 또한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생물학이 온통 오류로 가득 차 있지 않은 한, 인간의 지능과 활력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과 자유다. 활동적이고 강하며 영리한 자들은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도태되는 환경 말이다. 또한 유능한 이들의 충성스러운 결속과 자제력, 인내심, 그리고 결단력을 가치 있게 만드는 환경이기도 하다. 가족 제도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들, 즉 격렬한 질투나 자식에 대한 애뜻함,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 또한 모두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눈앞의 위험 덕분에 정당성을 얻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눈앞의 위험은 어디에 있는가? 부부 사이의 질투나 격렬한 모성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열정에 반대하는 정서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 정서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세련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우리에게 그것들은 그저 야만적인 흔적이자 불협화음일 뿐이다."

사람들의 왜소한 체구와 지능의 결여, 그리고 그곳에 널린 거대하고 풍성한 폐허들을 떠올리니 자연이 완벽하게 정복되었다는 나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격렬한 투쟁이 지나가면 고요가 찾아오는 법이니까. 인류는 과거에 강인하고 활기차며 지적이었다. 인류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기 위해 그 넘치는 생명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환경이 불러온 반작용이 시작된 것이다.

“완벽한 안락함과 안전이 보장되는 새로운 환경 아래라면, 우리에게 힘의 근원인 그 불안정한 에너지는 오히려 약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조차 생존을 위해 한때 필수적이었던 특정한 성향이나 욕구들이, 지금은 끊임없이 실패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육체적 용기나 전투를 즐기는 마음은 문명화된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균형과 안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지적 능력이든 육체적 능력이든,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전쟁이나 고립된 폭력의 위험도, 맹수의 위험도 없었다고 나는 판단했습니다.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전염병도,

고된 노동의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우리가 약하다고 부르는 이들도 강한 이들만큼이나 잘 적응해 있을 것이며, 실제로 더 이상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강한 이들은 분출할 곳 없는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격한 건물들의 정교한 아름다움은, 인류의 에너지가 삶의 조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안착하기 직전, 목적을 잃고 마지막으로 요동치며 내뿜은 결과물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마지막 위대한 평화가 시작되던 시점에 나타난 승리의 화려한 불꽃이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에너지가 겪게 되는 운명은 늘 이와 같았습니다. 에너지는 예술과 에로티시즘으로 분출되다가, 결국 나른함과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예술적 충동마저 결국은 사그라들고 말 것이다. 내가 목격한 시대에는 이미 그 충동이 거의 소멸해 있었다. 꽃으로 몸을 장식하고, 춤을 추며, 햇살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예술적 정신의 흔적은 딱 그 정도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마저도 만족스러운 무기력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인간은 고통과 결핍이라는 숫돌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닦으며 날카로움을 유지한다. 그런데 내가 본 그곳에서는, 그 끔찍한 숫돌이 마침내 부서져 버린 듯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그곳에 서서, 나는 이 단순한 설명만으로 세상의 난제를 다 풀어냈다고 생각했다. 이 매혹적인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마침내 파헤쳤다고 믿었다. 어쩌면 그들이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고안해 낸 대책이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나머지,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버려진 폐허들이 왜 생겨났는지도 설명이 된다. 나의 가설은 매우 단순했고, 그럴싸하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잘못된 이론이 그러하듯 말이다.

제VII장

갑작스러운 충격

인간이 이룩한 이 너무나 완벽한 승리를 되새기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북동쪽에서 노랗고 둥근 보름달이 은빛 광채를 쏟아내며 떠올랐다. 발아래에서 움직이던 작고 밝은 형체들은 움직임을 멈추었고, 소리 없는 올빼미 한 마리가 곁을 스쳐 지나갔다. 밤의 한기에 몸이 떨려왔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 잠을 청할 곳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내가 알던 건물을 찾아 눈을 돌렸다. 그러다 시선은 청동 받침대 위에 놓인 백색 스프링크스 상으로 향했다. 떠오르는 달빛이 밝아질수록 스프링크스의 형체도 점점 뚜렷해졌다. 스프링크스를 배경으로 은빛 자작나무가 보였다. 창백한 달빛 아래 검게 뒤엉킨 만병초 덩굴도 보였고, 작은 잔디밭도 보였다. 나는 다시 잔디밭을 살펴보았다. 기묘한 의구심이 엄습하며 안도감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알던 그 잔디밭이 아니야.”

“하지만 분명 잔디밭 쪽이었습니다. 스프링스의 창백하고 문드러진 얼굴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상상조차 못 하시겠지요. 타임머신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얼굴을 후려치는 채찍질처럼, 내가 살던 시대에서 영영 떨어져 이 낯선 신세계에 무력하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엄습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몸에 실제적인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다. 공포가 목을 죄어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곧이어 나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언덕 아래로 성큼성큼 뛰어 내려갔다. 달리다 한 번은 앞으로 고꾸라져 얼굴을 다치기도 했다. 하지만 피를 멈출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 다시 달렸고, 따스한 피가 뺨과 턱으로 흘러내렸다. 달리는 내내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들이 타임머신을 조금 옮겨 놓았어. 방해되지 않게 덤불 아래로 밀어 넣은 거야.’ 그럼에도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렸다. 극도의 공포가 찾아올 때면 역설적으로 어떤 확신이 들곤 하는데, 나는 그런 확신이 어리석은 망상임을 알고 있었다. 타임머신이 이미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졌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언덕 꼭대기에서 작은 잔디밭까지의 거리는 아마 2마일 정도였을 텐데, 10분 만에 주파한 듯하다. 나는 그리 젊은 나이도 아니다. 달리는 동안 나는 타임머신을 두고 온 자신의 자만심과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소리 높여 울부짖어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달빛이 비치는 그 세계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잔디밭에 다다랐을 때, 내 가장 최악의 공포가 현실이 되었다. 타임 머신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검게 뒤엉킨 덩불 사이로 텅 빈 공간이 드러나자, 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온몸에 한기가 서렸다. 혹시라도 구석진 곳에 숨어 있을까 싶어 미친 듯이 주변을 헤맸다. 그러다 문득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떠오르는 달빛 아래, 청동 받침대 위에 놓인 스프링크스가 내 머리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하얗게 빛나는 그 모습은 마치 나병에 걸린 듯 얼룩덜룩했다. 스프링크스는 나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비웃듯 미소 짓는 것만 같았다.

그 작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계를 어딘가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을 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신체적 능력도, 지적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나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까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어떤 힘이 개입하여, 나의 발명품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느낌 말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었다. 다른 시대에서 이 기계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은 이상, 타임머신이 시간 속을 이동했을 리는 없다는 점이다. 레버를 부착하는 방식—이 방법은 나중에 보여주겠다—덕분에, 레버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기계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기계는 이동했을 것이고, 다만 공간 속 어딘가에 숨겨졌을 뿐이다. 그런데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제가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혔던 모양입니다. 스프링크스 주변의 달빛 비치는 덩불 사이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희

미한 빛 속에서 작은 사슴이라고 착각한 하얀 짐승을 보고 깜짝 놀라 쫓기도 했지요. 그날 밤 늦게, 부러진 나뭇가지에 손가락 마디가 찢겨 피가 날 때까지 주먹으로 덤불을 내리쳤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흐느끼고 울부짖으며 거대한 석조 건물로 내려갔습니다. 커다란 홀은 어둡고 고요했으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울통불통한 바닥에 미끄러져 말라카이트 탁자에 부딪혔고, 그 바람에 정강이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성냥을 켜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먼지 쌓인 커튼을 지나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쿠션이 가득 깔린 두 번째 대강당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작은 체구의 사람들이 스무 명쯤 모여 잠들어 있었다. 내가 정적을 깨는 소음과 성냥불의 번쩍임과 함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으니, 그들이 나의 두 번째 등장을 무척이나 기이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성냥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타임머신은 어디 있지?"

나는 화가 난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한데 모아 흔들며 묻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무척이나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대부분은 몹시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들이 내 주위에 둘러서 있는 모습을 보자, 문득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포라는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려 애쓰는 것 말이다. 낮 동안 보여준

그들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이미 공포라는 감정을 잊어버린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갑작스럽게 성냥을 꺼뜨렸다. 그러고는 달려 나가는 길에 사람을 하나를 들이받고는, 다시 커다란 식당을 가로질러 달아나 달빛이 비치는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갔다. 공포에 질린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의 작은 발들이 이리저리 뛰고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다. 달이 하늘로 떠오르는 동안 내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상실감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동쪽으로 부터 절망적으로 격리된 기분이었다. 미지의 세계에 떨어진 기이한 짐승이 된 것만 같았다. 나는 신과 운명을 부르짖으며 울부짖고 소리를 질러댔던 모양이다. 길고 절망적인 밤이 저물어갈 무렵, 나는 끔찍한 피로를 느꼈던 기억이 있다. 이곳저곳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장소를 들여다보고, 달빛이 비치는 폐허 사이를 더듬으며, 검은 그림자 속에 숨은 기이한 생물들을 만져보기도 했다. 마침내 나는 스팅크스 근처 바닥에 누워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흐느꼈다. 그때는 기계를 두고 떠난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마저 기운과 함께 빠져나가 버린 뒤였다.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고통뿐이었다. 그러다 잠이 들었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대낮이었다. 내 팔이 닿을 만한 잔디밭 위로 참새 두 마리가 폴짝거리며 놀고 있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몸을 일으켰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깊은 버림받음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지 기억해 내려 애썼다. 곧 머릿속이 맑아지며 상황이 정리되었다. 환한 낮의 빛 아래서라면 내 처지를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었다.

어젯밤 내가 얼마나 미친 듯이 날뛰었는지, 그 무모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나는 생각했다. '만약 타임머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파괴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선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곳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익히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재료와 도구를 구할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언젠가 다시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절망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무엇보다, 이곳은 아름답고도 기이한 세계였다.

"아마도 타임머신을 누군가 가져간 모양이다. 하지만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숨겨진 곳을 찾아내어 무력으로든 기지로든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다짐하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어디서 몸을 씻을 수 있을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몸은 지치고 뻘뻘했으며, 여행의 먼지로 더러워진 상태였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니 나 또한 그만큼 상쾌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감정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다. 실제로 일상적인 움직임을 되찾고 나니, 지난밤 느꼈던 그 강렬한 흥분이 도리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작은 잔디밭 주변을 살살이 살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몸짓을 섞어가며 물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아이들은 내 몸짓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아이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고, 어떤 아이는 농담인 줄 알고 나를 비웃었다. 웃고 있는 아이들의 예쁜 얼굴을 보고도 손을 대지 않기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어리석은 충동이었지만, 공포와 맹목적인 분노가 낳은 악마 같은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여전히 혼란에 빠진 나를 자극하고 있었다.

차라리 땅바닥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스팅크스 받침대와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 뒤집힌 타임머신과 씨름하며 발을 디뎠던 자국 사이, 그 중간 지점쯤에서 땅이 찢겨 나간 흔적을 발견했다. 주변에는 무언가 옮겨간 흔적이 더 있었는데, 마치 나무늘보가 남긴 것 같은 기묘하고 좁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그 흔적을 따라 나는 받침대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앞서 말했듯, 받침대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라 양옆에 깊게 틀을 짠 장식 판들이 화려하게 박혀 있는 형태였다.

나는 다가가 그 판들을 두드려 보았다. 받침대 안은 비어 있었다. 장식 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판과 틀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손잡이나 열쇠 구멍은 없었지만, 내 짐작대로 만약 이 판들이 문이라면 안쪽에서 열리는 구조일 것 같았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타임머신이 저 받침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는 그리 큰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임머신이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덤불 사이로, 그리고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 아래를 지나 주황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머리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미소

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고,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이 다가오자 나는 청동 받침대를 가리키며 그것을 열고 싶다는 뜻을 전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가 그쪽으로 손짓을 하자마자 그들은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다. 그들의 표정이 어떠한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비유하자면, 아주 조신한 여성에게 몹시 상스러운 몸짓을 했을 때 그녀가 지을 법한 표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모욕을 당한 것처럼 자리를 떠버렸다. 다음에는 흰 옷을 입은, 아주 선량해 보이는 작은 친구에게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웬지 모르게 그의 태도 때문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타임머신이 간절했기에 그에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다. 그가 다른 이들처럼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결국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세 걸음 만에 그를 따라잡아, 목 근처의 험거운 옷자락을 움켜쥐고 스팅크스를 향해 끌고 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얼굴에 서린 공포와 혐오감을 보았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를 놓아주고 말았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아직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주먹으로 청동판을 거세게 두드렸다.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킁킁거리는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린 듯했다. 하지만 착각이었을 것이다. 나는 강가에서 커다란 조약돌 하나를 집어 들고 와, 장식에 새겨진 나선형 무늬가 납작해질 때까지 내리쳤고, 그때마다 청동의 녹이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갔다. 내가 간헐적으로 거세게 두드려대는 소리를, 양옆으로 1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던 그 가냘픈 사람들도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언덕 위로 모여든 그들 한 무리가 나를 몰래 훑쳐보는 모습이 보였다. 결국 나는 덤고 지친 나머지, 그곳을 지켜보려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너무 안달이 난 탓에 오래 지켜보지 못했다. 나는 긴 시간 가만히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서구적인 사람이다. 어떤 문제에 매달려 몇 년이고 연구할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스물네 시간을 기다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잠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언덕을 향해 덤불 사이를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해. 타임머신을 다시 찾고 싶다면 저 스텝크스 같은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해. 만약 저들이 내 타임머신을 가져가려 한다면, 지금 저 청동 판을 부수어 놓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반대로 저들이 가져갈 생각이 없다면, 내가 요구하기만 하면 곧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저런 수수께끼 앞에서 정체 모를 것들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는 건 무의미한 짓이야. 그러다간 집착에 빠져 미쳐버릴지도 몰라. 차라리 이 세상을 마주하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관찰하고, 그 의미를 성급하게 추측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결국에는 모든 것의 실마리를 찾게 될 거야.”

그때 문득 이 상황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미래의 시대로 가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생했던 기억과,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난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인류가 고안해 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하고 절망적인 함정을 스스로에게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비록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나 자신이었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거대한 궁전을 지나갈 때면, 저 작은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저 내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내가 청동 문을 두드려댄 일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피한다는 사실만큼은 꽤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며 그들을 쫓아다니지 않으려 애썼다. 덕분에 하루 이틀이 지나자 상황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언어를 익히는 데 집중했고, 동시에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돌아다녔다. 내가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놓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말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언어는 거의 구체적인 명사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추상적인 용어는 거의 없었으며, 비유적인 표현도 거의 쓰지 않는 듯했다. 문장은 대개 두 단어 정도로 짧고 단순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기본적인 명제 외에는 어떤 것도 전달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타임머신에 대한 생각과 청동 문의 수수께끼를 기억 한구석에 최대한 밀어 넣어두기로 결심했다. 언어 실력이 늘어 자연스럽게 그 문체에 다시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해하겠지만, 어떤 묘한 기분 때문에 나는 내가 처음 도착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몇 마일 안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었다.

제VIII장

그들은 내가 그들을 구해냈다는 사실에 전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쫓아내듯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내가 보기에 온 세상은 템스 계곡과 마찬가지로 생동감 넘치는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느 언덕을 오르든 화려한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건물들은 재료와 양식이 제각각이라 변화무쌍했다. 상록수들이 뻗뻗하게 모여 숲을 이루고 있었고, 꽃이 만발한 나무와 나무고사리들도 가득했다. 곳곳에서는 물줄기가 은빛으로 빛났으며, 멀리 보이는 땅은 푸른 물결 모양의 언덕으로 솟아오르더니 이내 고요한 하늘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었다.

그러다 곧 내 주의를 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다. 바로 원형 우물들이었다. 내 눈에는 몇몇 우물이 아주 깊어 보였다. 첫 산책 때 따라갔던 언덕길 옆에도 우물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른 우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입구는 기묘하게 세공된 청동으로 테를 둘렀고, 작은 돔 형태의 덮개가 비를 막아주고 있었다.

나는 우물 곁에 앉아 어두운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물빛은 커녕 성냥불을 켜서 비춰보아도 아무런 반사광조차 보이지 않았다. 대신 모든 우물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는 듯한 소리였다. 성냥불을 밝혀 확인해 보니, 우물 구멍 아래로 일정한 공기의 흐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종이 조각 하나를 우물 안으로 던져 보았다. 종이는 천천히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대신, 순식간에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져 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우물들이 경사지 곳곳에 서 있는 높은 탑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탑 위쪽의 공기가 마치 뜨거운 여름날 햇볕에 달궈진 해변 위에서 아른거리는 것처럼, 자주 일렁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본 결과, 나는 이것이 광범위한 지하 환기 시스템이라는 강한 확신을 얻었다. 다만 그 시스템이 지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처음에는 이 시설들이 이 사람들의 위생 설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한 결론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 추측이었다.

이 실제적인 미래에서 머무는 동안, 하수도나 종, 운송 수단, 혹은 그와 유사한 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겠다. 내가 읽어온 유토피아나 미래에 관한 환상적인 이야기들 중에는 건축이나 사회 체제 등에 대해 방대한 세부 사항을 다루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온 세계가 한 사람의 상상 속에 담겨 있을 때는 그런

세부 사항을 그려내기가 충분히 쉽지만, 내가 이곳에서 마주한 것과 같은 실재하는 현실 속에 놓인 실제 여행자에게는 도무지 알아낼 길이 없는 것들이다.

중앙아프리카에서 갓 올라온 흑인이 자기 부족에게 들려주려고 가지고 돌아갈 런던 이야기를 상상해 보라. 그가 철도 회사나 사회 운동, 전화와 전신선, 택배 회사나 우편환 따위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우리라면 적어도 그에게 기꺼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가 아는 것이라 해도, 여행 경험이 없는 친구에게 그것을 얼마나 이해시키거나 믿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간극이 그토록 좁은데, 나와 이 황금시대 사람들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더 넓겠는가! 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동으로 조직되어 돌아간다는 막연한 인상 외에는, 그 차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거의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

예를 들어 매장 방식에 관해서라면, 화장장이나 무덤을 연상시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탐사한 범위를 벗어난 어딘가에 공동묘지나 화장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또한 내가 일부러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이었으나, 처음에는 그 점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풀리지 않았다. 이 문제는 나를 당혹스럽게 했고, 그러다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종족 가운데에는 노인이나 병약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자동화된 문명과 퇴락한 인류에 대해 내가 처음 세웠던 가설이 그리 오래 만족스럽지는 않았음을 고백해야겠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가설을 떠올릴 수도 없었다. 내가 겪었던 난관들을 설명해 보겠다.

내가 탐사했던 몇몇 거대한 궁전들은 그저 거주 공간일 뿐이었다. 그곳은 거대한 식당과 침실에 불과했다. 그 어디에서도 기계나 어떤 종류의 도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때때로 새로 만들 어야 할 것 같은 쾌적한 옷감을 걸치고 있었고, 장식은 없었으나 꽤 정교한 금속 공예 기술이 들어간 샌들을 신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런 물건들은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이 작은 사람들에게서는 창조적인 성향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상점도, 작업장도, 외부에서 물건을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 그들은 온종일 그저 가볍게 놀거나, 강에서 목욕을 하거나, 반쯤 장난스러운 태도로 사랑을 나누거나, 과일을 먹고 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타임머신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타임머신을 흰 스팅크스의 움푹 팬 받침대 안으로 옮겨 놓았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물기 하나 없는 저 우물들과 깜빡이는 기둥들까지, 나는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한 기분이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비문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아주 명료하고 훌륭한 영어 문장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는 한편, 그 사이사이에 전혀 알 수 없는 단어나 심지어 알파벳조차 모르는 글자들이 뒤섞여 있다고 가정해 보라. 내가 방문한 802,701년의 세상이 바로 내게 그렇게 다가왔다.

그날 나는 일종의 친구를 사귀었다. 우연한 일이었다. 얇은 물가에 서 작은 생물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물결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물살은 꽤 빨랐지만, 평범한 수영 실력을 갖춘 이라면 충분히 거스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눈앞에서 작은 생물이 물에 빠져 약하게 울부짖는 데도, 그 누구 하나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들으면 이 생물들에게 얼마나 기이한 결핍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을 파악한 나는 서둘러 옷을 벗고 물 아래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불쌍한 어린 생물을 붙잡아 무사히 육지로 끌어올렸다. 팔다리를 가볍게 문질러 주자 곧 정신을 차렸고,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 나는 이미 그 종족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기에, 그 아이에게 어떤 감사 인사조차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

이 일은 아침에 일어났다. 오후가 되었을 때, 나는 탐사를 마치고 거처로 돌아가는 길에 나의 작은 여인을 만났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랬을 것이다. 그녀는 기쁨에 겨운 비명을 지르며 나를 맞이했고,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분명 나만을 위해 정성껏 만든 것이었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쩌면 당시 나는 무척이나 쓸쓸함을 느끼

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그 선물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기색을 보이려 애썼다.

우리는 곧 작은 돌 정자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라고 해봐야 주로 미소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다. 그 생명체가 보여준 친근함은 마치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내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서로 꽃을 주고받았고, 그녀는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 나 역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그러다 나는 말을 걸어보려 시도했고, 그녀의 이름이 위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에게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이어진 기묘한 우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우정이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는, 이제부터 이야기해주겠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다. 언제나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오려 애를 썼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기저기 탐험을 나설 때면, 그녀를 지칠 때까지 걷게 하다가 결국 기진맥진한 채 나를 애처롭게 부르는 그녀를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못내 마음 아팠다. 하지만 세상의 수수께끼는 풀어내야만 했다. 나는 고작 자그마한 연애 놀음이나 하려고 미래에 온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럼에도 내가 떠날 때 그녀가 느끼는 고통은 무척 컸다. 헤어질 때면 때때로 미친 듯이 항의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그녀의 헌신은 위안이 된 만큼이나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왠지 모르게 커다란 위안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그저 어린

아이 같은 애정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를 남겨두고 떠날 때 내가 그녀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준 것인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다. 또한 그녀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도 너무 늦은 뒤에야 분명히 깨달았다.

그 작은 인형 같은 생명체는 그저 나를 좋아하는 기색을 내비치고, 나약하고 무력한 방식으로 나를 아낀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내가 백색 스팅크스 근처로 돌아갈 때면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기만 하면 나는 곧바로 그녀의 하얗고 금빛 어린 작은 형체를 찾곤 했다.

공포라는 감정이 아직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도 바로 그녀였다. 낮 동안의 위나는 두려움을 모르는 듯했고, 나를 이상할 정도로 신뢰했다. 한 번은 내가 어리석게도 그녀를 겁주려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둠을, 그림자를, 그리고 검은 형체들을 몹시 두려워했다. 그녀에게 있어 어둠은 유일하게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그 감정은 유독 격렬해서,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과 관찰에 잠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해가 지면 이 작은 사람들이 거대한 저택으로 모여들어 떼를 지어 잠을 잔다는 사실이었다. 불빛도 없이 그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어둠이 내린 뒤에 밖으로 나와 있거나, 실내에서 혼자 잠을 자는 위나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나머지 그 공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위나가 그토록 괴로워하는데도, 나는 잠을 잘 때만큼은 잠든 무리들과 떨어져 있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녀는 무척 괴로워했지만, 결국 나를 향한 기묘한 애정이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낸 밤들 가운데 다섯 밤은, 마지막 밤까지 포함해서, 그녀가 내 팔을 베고 잠들었다. 하지만 그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 이야기가 자꾸만 곁길로 샌다.

내가 새벽녘쯤 잠에서 깬 것은 그녀가 구조되기 전날 밤이었을 것이다. 나는 줄곧 뒤척이며 무척 불쾌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물에 빠져 죽고 말미잘들이 부드러운 촉수로 내 얼굴을 더듬는 꿈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회색빛을 띤 어떤 동물이 방금 막 방에서 뛰쳐나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둠 속에서 사물들이 막 기어 나오는 듯한, 모든 것이 색채를 잃고 윤곽은 또렷하면서도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희뿌연 회색빛 시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강당으로 내려갔고, 궁전 앞의 돌바닥 위로 걸어 나갔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으니 차라리 일출이라도 보자는 심산이었다.

달이 지고 있었다. 사그라드는 달빛과 새벽의 첫 창백한 빛이 뒤섞여 기괴한 반명(半明)을 이루었다. 덩불은 먹물처럼 새까맣고, 땅은 어두운 회색이었으며, 하늘은 색채도 생기도 없었다. 그리고 언덕 위로 는 유령들이 보이는 듯했다. 경사면을 살피는 동안 세 번에 걸쳐 하얀

형체들을 보았다. 두 번은 유인원처럼 생긴 하얀 생명체 하나가 언덕 위로 꽤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본 듯했고, 한 번은 폐허 근처에서 그것들 세 마리가 무리 지어 검은 물체를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황급히 움직였다. 나는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 못했다. 덩불 사이로 사라진 듯했다. 알다시피, 새벽빛은 여전히 희미했다. 여러분도 겪어본 적 있을, 그 서늘하고 어렴풋한 이른 아침의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낮의 빛이 차오르며 세상에 다시금 선명한 색채가 돌아오자, 나는 주변 풍경을 예리하게 살폈다. 하지만 내가 보았던 그 하얀 형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것들은 그저 어스름한 빛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영 같았다.

“유령이었던 게 분명해.” 나는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어느 시대의 유령이었을까.”

문득 그랜트 앨런의 기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나는 그 생각이 우스워졌다. 앨런은 만약 세대마다 사람들이 죽어 유령을 남긴다면, 결국 세상은 유령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80만 년 뒤에는 유령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졌을 것이고, 그러니 한꺼번에 네 명이나 보았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농담은 그리 즐겁지 않았다. 나는 아침 내내 그 형체들을 생각했지만, 위나를 구하느라 정신이 팔려 결국 그 생각들을 떨쳐버렸다. 나는 그 형체들을, 타임머신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매던 첫날에 내가 깜짝 놀라게 했던 그 하얀 동물의 이미지와 막연하

게 연결 지어 떠올렸다. 위나는 그 생각을 대신하기에 충분히 기분 좋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체들은 머지않아 훨씬 더 치명적인 모습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될 운명이었다.

이 황금시대의 날씨가 우리 시대보다 얼마나 더 뜨거웠는지 이미 언급했던 것 같다. 그 이유를 나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태양 자체가 더 뜨거웠거나,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보통 미래에는 태양이 꾸준히 식어갈 것이라고 가정하곤 한다. 하지만 다윈의 아들이 펼친 것과 같은 추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행성들이 하나둘씩 모체인 태양 속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고 만다. 이러한 대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태양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다시 타오를 것이다. 어쩌면 어떤 내행성이 이미 그런 운명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든, 태양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어느 아주 무더운 아침이었다. 아마도 내가 머문 네 번째 날이었을 것이다. 나는 잠을 자고 식사를 하던 대저택 근처의 거대한 폐허 속으로 들어가, 뜨거운 열기와 눈부신 햇살을 피하고 있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무너진 석조 터미 사이를 기어오르던 나는 좁은 회랑 하나를 발견했다. 그 회랑의 끝과 측면 창문은 무너져 내린 돌덩이들로 막혀 있었다. 바깥세상의 찬란한 빛과 대조되어, 그곳은 처음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게 느껴졌다. 빛에서 어둠으로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눈앞에 색점들이 어지럽게 일렁였다. 나는 더듬거리며 회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발길을

멈추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그 눈동자들이 번뜩이며 빛나고 있었다.

야생의 짐승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오래된 본능적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주먹을 꽉 쥐 채 그 번뜩이는 눈동자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때 인류가 누리고 있는 듯한 그 완벽한 안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다 문득 어둠에 대해 느끼는 기묘한 공포가 떠올랐다. 나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한 걸음 내디디며 말을 건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 목소리는 거칠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내가 손을 뻗어 부드러운 무언가를 만지는 순간, 그 눈동자가 옆으로 휙 돌아가더니 하얀 형체가 내 걸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긴장감 속에 몸을 돌렸다. 그러자 내 뒤편, 햇빛이 내리쬐는 공간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기묘하고 작은 유인원 같은 형체가 보였다. 그 형체는 머리를 특이한 방식으로 숙인 채 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화강암 덩어리에 부딪혀 비틀거리더니 옆으로 휘청였고, 이내 무너진 석조 구조물 더미 아래의 검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물론 내가 본 모습이 완벽할 리는 없다. 하지만 그놈이 칙칙한 흰색이었고, 크고 기이한 회적색 눈을 가졌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머리 위와 등줄기를 따라 금빛 머리카락이 나 있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놈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형체를 또렷하게 볼 수는 없었다. 네 발로 뛰었는지, 아니면 앞팔을 아주 낮게 내린 채 달렸는지조차 알 수 없다.

잠시 멈춰 섰던 나는 놈을 따라 두 번째 폐허 더미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철쭉 같은 어둠 속을 한참 헤매던 중,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우물 같은 둥근 구멍을 발견했다. 쓰러진 기둥이 입구를 반쯤 가로막고 있는 구멍이었다.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다. '저 괴물이 구멍 아래로 사라진 건가?'

성냥을 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작고 하얀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놈은 커다랗고 빛나는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인간의 형상을 한 거미 같았다! 놈이 벽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구멍 벽면에 설치된 금속제 발 받침과 손잡이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마치 사다리처럼 구멍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그때 성냥불이 내 손가락을 태웠고, 성냥은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불꽃은 떨어지는 도중에 꺼져 버렸다. 다시 성냥을 켜고 보았을 때, 그 작은 괴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 우물을 내려다보며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본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납득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점차 진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인류는 하나의 종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 인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동물로 갈라져 있었다. 지상 세계의 우아한 아이들은 우리 세대의 유일한 후손이 아니었다.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간 저 창백하고 불결하며 밤에만 활동하는 괴물 또한, 모든 시대를 이어받은 인류의 후계자였다.

깜빡이는 기둥들을 떠올리며, 나는 지하 환기 시설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자 그 기둥들이 품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문득 의문이 생겼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에, 대체 저 '레무르'라는 존재는 어떤 역할로 끼어 있는 것일까? 저 아름다운 지상인들이 누리는 나태하고 평온한 삶은 이 존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 수직 통로의 끝, 지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나는 우물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적어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난관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저 아래로 내려가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막상 내려가려니 겁이 났다.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아름다운 지상인 두 명이 연애 놀이에 빠져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그림자가 드리운 이곳으로 달려 들어왔다. 남자는 여자에게 꽃을 던지며 뒤를 쫓고 있었다.

넘어진 기둥에 팔을 기댄 채 내가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자, 그들은 나를 발견하고는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듯했다. 아무래도 이런 구멍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가 보았다. 내가 구멍 하나를 가리키며 그들의 언어로 질문을 던지려 하자, 그들은 더욱 눈에 띄게 당황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가진 성냥에는 관심을 보였고, 나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 성냥을 몇 차례 그었다. 우물 근처에서 다시 성냥을 켜보려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결국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워나에게 돌아가 그녀에게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지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격렬한 변

화를 겪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추측과 인상들이 뒤섞이며 새로운 결론을 향해 미끄러지듯 재편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우물들과 환기탑, 그리고 유령의 정체라는 수수께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마리를 잡기 시작했다. 청동 문이 지닌 의미와 타임머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어렵פות한 단서를 얻었다. 게다가 나를 괴롭혔던 경제적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도 아주 막연하게나마 실마리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견해는 이러했다. 분명했다. 이 두 번째 인류는 지하에서 살아가는 종이었다. 이들이 지상으로 드물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오랜 시간 지하에서 생활해 온 결과라는 확신을 준 결정적인 근거가 세 가지 있었다.

첫째는 어둠 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동물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창백한 모습이었다. 켄터키 동굴에 사는 흰 물고기가 좋은 예다. 둘째는 빛을 반사하는 능력을 갖춘 커다란 눈이었다. 올빼미나 고양이처럼 밤에 활동하는 생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햇빛 아래에서 이들이 보여준 명백한 혼란이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를 향해 서둘러 도망치면서도 갈팡질팡하며 어설피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빛 아래에서 머리를 특이하게 가누는 자세까지. 이 모든 정황은 이들의 망막이 빛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었다.

내 발밑의 땅속은 거대한 터널로 뒤덮여 있었을 것이고, 이 터널들은 새로운 인류의 서식지였을 것이다. 언덕 사면을 따라 곳곳에 환기구와 우물이 뚫려 있었다. 강 계곡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이 시설들은 그 터널망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뻗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

었다. 그렇다면 낮의 인류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작업들이, 이 인공적인 지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그 생각은 매우 그럴싸했기에 나는 즉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두 종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추측하기 시작했다. 아마 여러분은 내 이론이 어떤 형태일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은 머지않아 내 가설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처음에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로부터 출발하여,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일시적이고 사회적인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핵심 열쇠라고 대낮의 햇살처럼 명확하게 느껴졌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이 생각이 기괴하고 터무니없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문명의 덜 화려한 목적을 위해 지하 공간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철도가 있고, 새로운 전기 철도와 지하철이 있으며, 지하 작업실과 식당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나는 분명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산업이 하늘이라는 태생적 권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산업이 점점 더 크고 거대한 지하 공장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 또한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뜻이다. 그러다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런던 동부 지역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지표면의 자연으로부터 격리된 채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부유층이 점차 폐쇄적으로 변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분명 그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빈곤층의 거친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격리하려는 심리가 커진 탓이라. 이러한 흐름은 이미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지표면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고 폐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 주변만 보더라도, 아름다운 전원 지대의 절반가량은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다.

또한 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고등 교육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부유층이 세련된 생활 방식을 향유할 기회와 그에 대한 유혹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격차로 인해 계층 간의 교류, 즉 현재 우리 인류가 사회 계층에 따라 종으로 갈라지는 것을 늦춰주고 있는 통혼을 통한 신분 상승은 갈수록 드문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지상에는 쾌락과 안락함,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진 자들'이 남고, 지하에는 노동 조건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살아가는 '가지지 못한 자들', 즉 노동자들이 남게 될 것이다. 일단 그들이 지하에 자리 잡으면, 동굴의 환기를 유지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굶어 죽거나 질식해 죽고 말 것이다. 그중 불행을 느끼며 반항하는 기질을 타고난 이들은 죽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상태가 고착되면, 살아남은 이들은 지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환경에 그러했던 것만큼이나 지하 생활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여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 과정

에서 나타나는 세련된 아름다움과 창백하고 병적인 안색 또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였다.

내가 꿈꾸던 인류의 위대한 승리는 내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도덕적 교육이나 보편적 협력을 통해 이룬 승리가 아니었다. 대신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성된 과학력을 갖춘 채, 오늘날의 산업 체제를 논리적 결론까지 밀어붙인 진정한 귀족 계급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히 자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동료 인간 모두를 정복한 결과였다.

미리 경고해 두지만, 이것은 당시 나의 가설일 뿐이었다. 유토피아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줄 안내자 따위는 내게 없었다. 나의 설명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이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 하지만 설령 이 가설이 맞다 하더라도, 마침내 도달했던 그 균형 잡힌 문명은 이미 정점을 지나 한참 동안 쇠락의 길을 걸었음이 분명했다. 지상 세계 사람들이 누리는 지나치게 완벽한 안락함은 그들을 서서히 퇴화시켰고, 신체 크기와 힘, 그리고 지능을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만들었다. 그 사실만큼은 이미 충분히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지하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때까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본 몰록—참고로 이 생명체들을 부르는 이름은 몰록이었다—의 모습을 보건대, 인류의 변형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아름다운 종족인 엘로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골치 아픈 의문들이 생겨났다. 왜 물록들이 내 타임머신을 가져갔을까? 분명 물록들이 가져갔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엘로이들이 지배층이라면, 왜 그들은 내 타임머신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들은 어둠을 그토록 무서워하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나는 위나에게 이 지하 세계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위나가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더니, 이내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위나는 마치 그 주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듯 몸을 떨었다. 내가 조금 거칠게 몰아붙이자 위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황금시대에 내가 본 눈물은 내 눈물 말고는 위나의 눈물이 유일했다.

위나가 우는 모습을 보자 나는 물록에 대한 걱정을 돌연 멈추었다. 대신 위나의 눈에서 인간으로서 물려받은 흔적들을 지워주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나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고, 나는 엄숙한 마음으로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제IX장

몰록

여러분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명백히 올바른 방법이라 판단되는 그 새로운 단서를 따라가기까지 이틀이나 걸렸다. 그 창백한 몸뚱이들을 마주할 때면 왠지 모를 거부감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부는 마치 동물학 박물관의 알코올 병 속에 보존된 벌레나 표본들처럼 반쯤 색이 바랜 듯한 빛깔을 띠고 있었다. 게다가 만져보면 불쾌할 정도로 차가웠다. 아마도 내가 느낀 그 거부감은 상당 부분 엘로이들의 감응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리라. 이제야 나는 엘로이들이 왜 그토록 몰록을 혐오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아마도 몸 상태가 조금 나빠졌던 모양이다. 마음은 당혹감과 의구심으로 무거웠다. 한두 번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강렬한 공포가 엄습하기도 했다. 달빛 아래 작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대강당으로 소리 없이 기어 들어갔던 기억이 난다. 그날 밤 위나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나는 그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조차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달이 하현달로 접어들면 밤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고, 그러면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생물들, 곧 예전의 해충을 대신해 나타나 저 하얗게 변해버린 여우원숭이 같은 새 해충들이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이틀 동안 나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기분에 시달렸다. 타임머신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지하의 미스터리 속으로 용기 있게 뛰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지의 세계를 마주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만약 동행이라도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독하게 혼자였고, 우물 속 어둠을 향해 기어 내려가는 것조차 공포스러웠다. 여러분이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단 한 순간도 등 뒤가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아마도 이러한 불안함과 불안정함 때문에 나는 탐험을 떠날 때마다 점점 더 먼 곳까지 발길을 옮겼던 것 같다. 지금은 콤 우드라고 불리는 지역을 향해 남서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19세기의 밴스테드 방향 멀리서 거대한 초록빛 구조물이 보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그 어떤 것과도 성격이 달랐다. 내가 아는 그 어떤 궁전이나 유적보다도 거대했으며, 정면은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 외벽은 연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는데, 마치 특정 종류의 중국 자기처럼 푸르스름한 빛깔과 윤기가 흘렀다. 외형이 이토록 다르니 용도 또한 다를 것이라 짐작되었고, 나는 더 나아가 그곳을 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다. 길고 고단하게 한참을 돌아온 끝에 겨우 그 광경을 마주한 참이었다. 그래서 나는 모험을 다음 날로 미루기로 결심하고, 나를 반겨주며 애교를 부리는 어린 위나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호기심이 스스로를 속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초록빛 자기 궁전에 대한 궁금증을 핑계 삼아, 사실은 두려워하던 경험을 하루 더 미루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곳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 화강암과 알루미늄 유적이 있는 우물을 향해 길을 나섰다.

어린 위나가 내 곁에서 함께 달렸다. 위나는 우물가까지 내 옆에서 춤을 추며 따라왔지만, 내가 우물 입구에 몸을 굽혀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자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다. 나는 위나에게 입을 맞추며 "잘 가라, 작은 위나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내려놓은 뒤, 등반용 갈고리를 찾으려 난간을 더듬기 시작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용기가 다 빠져나갈까 두려워 꽤 서둘러 움직였다.

처음에 위나는 경악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이내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오더니, 작은 손으로 나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아이의 저항 덕분에 나는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위나를 조금 거칠게 뿌리치고는, 곧바로 우물 안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난간 너머로 고통에 찬 위나의 얼굴이 보였지만, 나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매달려 있는 불안정한 갈고리들을 내려다보아야 했다.

나는 아마도 200야드쯤 되어 보이는 수직 통로를 타고 내려가야 했다. 우물 벽면에는 금속 막대들이 돌출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붙잡고 내려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막대들은 나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생물에게 맞춰 설계된 것이라, 내려가는 동안 금세 몸이 빠근해지고 기운이 빠졌다. 단순히 피로한 정도가 아니었다. 막대 하나가 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휘어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밑바닥의 어둠 속으로 휩쓸려 떨어질 뻔했다. 잠시 동안 한 손에 의지해 매달려 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 다시는 쉬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곧 팔과 등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나는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며 가파른 통로를 계속 기어 내려갔다.

위쪽을 올려다보니 작은 푸른 원판 같은 구멍이 보였다. 그 구멍 너머로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고, 어린 위나의 머리가 검고 둥근 형태로 보였다.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기계의 쿵쾅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나를 압박해 왔다. 저 위쪽의 작은 구멍을 제외하면 모든 곳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다시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 위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몸은 건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지하 세계는 포기하고 다시 통로를 타고 올라갈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도 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마침내 더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내 오른쪽으로 30센티미터쯤 떨어진 벽면에 가늘고 긴 구멍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몸을 비틀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누워서 쉴 수 있을 만큼 좁고 긴 수평 터널의 입구였다. 정말 때마침이었다. 팔은 저릿했고 허리는 경

직되었으며,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길게 이어지면서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게다가 끊임없이 이어진 어둠 때문에 눈마저 침침해진 상태였다. 통로 아래로 공기를 불어넣는 기계들이 내뿜는 진동과 웅웅 거리는 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다. 얼굴에 닿는 부드러운 손길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벌떡 일어난 나는 성급히 성냥을 낚아채 불을 붙였다. 그러자 빛을 피해 황급히 물러나는 하얀 생명체 세 마리가 보였다. 지상 폐허에서 보았던 그 존재와 닮아 있었다. 그들은 내 눈에 도저히 빛이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눈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예민했다. 마치 심해어의 눈동자처럼 빛을 반사하기도 했다. 빛 한 점 없는 그 어둠 속에서도 그들이 나를 볼 수 있었으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들은 빛을 제외하면 나를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을 확인하려고 성냥을 켜는 순간, 그들은 즉시 달아났다. 그들은 어두운 하수구와 터널 속으로 사라졌고, 그곳에서 기이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들에게 소리쳐 불러보려 했으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지상 세계 사람들의 언어와 분명히 달랐다. 결국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탐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정말 큰일 났군'이라고 스스로 되뇌며 터널을 따라 조심스레 길을 찾아 나아갔다. 그러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이윽고 벽이 사라지며 탁 트인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나는 성냥을 하나 더 그어 불을 붙였다. 그러자 내가 거대한 아치형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동굴은 성냥불이 닿지 않는 곳까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성냥불 하나로 볼 수 있는 범위는 그저 동굴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다.

기억이 흐릿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스름 속에서 거대한 기계 같은 형체들이 솟아올라 기괴하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는 유령 같은 몰록들이 눈부신 빛을 피해 숨어 있었다. 덧불이자면, 그곳은 공기가 매우 답답하고 압박감이 느껴졌으며, 공기 중에는 갓 흘린 피의 희미한 냄새가 감돌았다. 중앙 통로를 따라 조금 내려가니 흰색 금속으로 된 작은 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식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차려져 있었다. 어쨌든 몰록은 육식 동물이 분명했다! 당시에든 나는 내가 본 그 붉은 고기 덩어리를 제공할 만큼 커다란 동물이 대체 무엇일지 궁금해했던 기억이 난다. 모든 것이 매우 불분명했다. 코를 찌르는 진한 냄새, 의미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형체들, 그리고 어둠이 다시 나를 덮치기만을 기다리며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외설스러운 형상들까지! 그때 성냥이 다 타들어가며 손가락을 찔렀고, 성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붉은 점이 되어 떨어졌다.

그 일을 겪은 뒤로, 나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타임머신을 타고 출발할 때만 해도, 나는 미래의 인류가 모든 도구와 장비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가정을 하고 있었다. 정작 나는 무기도, 약도, 담배를 피울 도구조차 챙기지 못한 채 떠났다. 때로는 담배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성

냥조차 충분히 가져가지 못했다. 코닥 카메라라도 하나 챙겼더라면 좋을 것을! 그랬다면 그 지하 세계의 찰나를 사진으로 남겨, 나중에 여유틈게 살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자연이 내게 부여한 무기인 손과 발, 그리고 이빨만을 가진 채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성냥 네 개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이 복잡한 기계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빛줄기를 붙잡고 나서야 성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전까지는 성냥을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불을 처음 보는 저 상층 세계의 존재들에게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라 성냥갑의 절반을 거의 다 써버린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성냥은 이제 네 개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있는데 누군가의 손이 내 손에 닿았다. 가늘고 긴 손가락들이 내 얼굴을 더듬었고, 기분 나쁜 악취가 코끝을 찔렀다. 그 끔찍하고 작은 생물들이 내 주변에서 떼 지어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손에 쥐고 있던 성냥갑을 누군가 살며시 가져갔고, 뒤에서는 다른 손들이 내 옷을 잡아당겼다.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나를 살피고 있다는 느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불쾌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실감 났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놈들이 움찔하며 물러났지만, 이내 다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놈들은 서로 기묘한 소리로 속삭이며 더욱 대담하게 나를 움켜쥐었다. 나는 몸을 세차게 떨며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이번에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였다.

이번에는 놈들이 크게 놀라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다시 다가오면서 기괴한 웃음소리를 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성냥을 하나 더 켜서 그 불빛을 방패 삼아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성냥을 켜고, 주머니에 있던 종이 조각을 태워 가물거리는 불꽃을 간신히 유지하며 좁은 터널을 향해 필사적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터널 안으로 채 들어서기도 전에 불꽃이 꺼져 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뒤쫓아오는 물록들이 마치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혹은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바스락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여러 개의 손이 나를 움켜쥐었다. 나를 뒤로 끌어당기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성냥을 다시 그어 눈이 부신 그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들이 눈먼 상태로 당혹스러워하며 나를 응시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역겹고 비인간적이었는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턱도 없는 창백한 얼굴에, 눈꺼풀도 없는 커다란 분홍빛 회색 눈동자라니! 하지만 더 지켜보려고 머뭇거리지는 않았다. 맹세컨대 나는 곧바로 물러났다. 두 번째 성냥이 다 타들어 갔을 때 나는 세 번째 성냥을 그었다. 수직 통로의 입구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성냥이 거의 다 타버린 상태였다.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펌프의 진동 때문에 어지러움이 느껴져, 나는 통로 가장자리에 몸을 뉘었다. 그때 옆으로 뻗어 나온 갈고리를 더듬어 찾으려 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발을 붙잡더니 나를 뒤로 거칠게 잡아끌었다. 나는 마지막 성냥을 켜으나, 성냥불은 곧바로 꺼져 버렸다. 하지만 다행히 손에 사다리 발판이 잡혔다. 나는 발을 격렬하게 휘저어 물록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재빨리

통로를 기어 올라갔다. 물록들은 아래에 남아서 눈을 깜빡이며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다만 불쌍한 놈 하나가 나를 어느 정도 따라오며 내 장화를 전리품처럼 붙잡으려 했던 것만 빼고 말이다.

그 오르막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20~30피트를 남겨두었을 때, 죽을 것 같은 메스꺼움이 몰려왔다. 붙잡은 곳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야 했다. 마지막 몇 야드는 이 어지러움과 싸우는 처절한 사투였다. 몇 번이나 머리가 빙빙 돌았고,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공포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마침내 어떻게든 우물 입구를 넘어섰고, 나는 폐허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와 눈이 멀 것 같은 햇빛 속으로 나아갔다. 나는 얼굴을 땅에 처박으며 쓰러졌다. 흙에서조차 달콤하고 깨끗한 향기가 났다. 그리고 나서 위나가 내 손과 귀에 입을 맞추던 것, 그리고 엘로이들 사이에서 들려오던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기억난다. 그 후 한동안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제X장

밤이 찾아왔다.

밤이 깊어지자 주변은 온통 어둠에 잠겼다. 나는 타임머신이 있는 곳을 찾으려 애썼지만, 사방이 칠흑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엘로이들은 모두 잠들었거나 각자의 거처로 흩어진 듯했다. 그들은 밤이 되면 마치 본능적으로 숨어버리는 존재들 같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이 불안감을 더했다. 나는 타임머신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없다면 나는 이 낯선 미래의 밤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었다. 나는 손을 더듬으며 주변의 지형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발밑의 풀과 흙의 감촉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멀리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 거대한 생명체가 내는 낮은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소리의

정체를 기다렸다. 밤은 깊어갔고, 나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실제로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진 듯했다. 타임머신을 잃어버린 밤의 고통을 겪을 때를 제외하면, 그동안 나는 결국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며 그 희망은 흔들리고 말았다. 지금까지는 그저 저 어린아이 같은 이들의 유전한 단순함과, 원리만 파악하면 극복할 수 있을 미지의 힘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몰록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역겨운 기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존재가 지닌 악의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혐오했다. 이전까지의 기분이 마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같았다면, 즉 구덩이 자체와 그곳을 빠져나갈 방법만을 고민하던 상태였다면, 이제는 덧에 걸린 짐승이 된 기분이었다. 곧 적이 들이닥칠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말이다.

“내가 두려워했던 적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승달이 뜨는 밤의 어둠이었습니다. 위나가 ‘어둠의 밤’에 대해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은 덕분에, 내 머릿속에는 이미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어둠의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는 일은 이제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달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고, 밤마다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지상에 사는 작은 존재들이 왜 그토록 어둠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이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록들이 초승달이 뜨는 밤에 어떤 추악한 악행을 저지를지 막연하게나마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나의 두 번째 가설이 완전히 틀렸음을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지상의 존재들이 한때는 특권을 누리던 귀족이었고, 물록들이 그들의 기계 노예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인류의 진화로 생겨난 이 두 종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거나, 이미 그 관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엘로이는 마치 카를로비냥의 왕들처럼, 그저 아름답기만 한 무용(無用)한 존재로 퇴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지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저 허락된 덕분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대 동안 지하에서 살아온 물록들이 마침내 햇빛이 비치는 지상 세계를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록들이 의복을 만들고 자신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과거에 봉사하던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는 추측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이 습관적으로 발을 구르는 것이나, 사람이 유희로 동물을 사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라진 필요가 그들의 생물학적 구조에 각인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의 질서가 이미 부분적으로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을 파멸시킬 인과응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만 세대 전, 아주 먼 옛날에 인간은 동족을 안락함과 햇살로부터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변해버린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엘로이들은 이미 오래된 교훈을 새로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공포’라는 감정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하 세계에서 보았던 고기 덩어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방식은 기묘했습니다. 깊은 명상에 잠겨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외부에서 던져진 질문처럼 불쑥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고기의 형태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무언가 익숙하다는 막연한 느낌은 들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체 모를 공포 앞에서 저 작은 존재들이 속수무책이었던 것과는 달리, 나는 달랐다. 나는 공포가 사람을 마비시키지 않고 미지의 존재가 더는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시대, 즉 인류의 성숙한 전성기에서 왔다. 적어도 나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다. 나는 더 지체하지 않고 무기를 갖추며, 잠을 청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런 피난처를 기반으로 삼는다면, 밤마다 어떤 괴물들에게 내가 노출되어 있는지 깨달으며 잃어버렸던 그 자신감을 다시 되찾아 이 낯선 세계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잠자리가 그들로부터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결코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들이 이미 나를 살살이 살펴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공포로 몸서리쳤다.

오후 내내 템스강 계곡을 따라 헤맸지만,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해 보이는 곳은 찾지 못했다. 우물들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물록처럼 손재주가 좋은 등반가들이라면 그 어떤 건물이나 나무라도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녹색 자기 궁전의 높이 솟은 첨탑과 매끄럽게 빛나던 벽면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저녁 무렵 위나를 어린아이처럼 어깨에 태운 채 남서쪽 언덕을 향해 올라갔다.

내가 계산했을 때 거리는 7~8마일 정도였으나, 실제로는 18마일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처음 그곳을 보았을 때는 거리가 실제보다 짧아 보이는 습한 오후였다. 게다가 신발 한쪽의 뒤꿈치가 헐거워진 데다 밑창을 뚫고 못이 올라오고 있었다. 집 안에서 신던 편안한 낡은 신발이 었지만, 그 때문에 나는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다. 궁전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진 지 한참 지난 뒤였다. 궁전은 창백한 노란빛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이 되어 서 있었다.

내가 위나를 안아 들기 시작했을 때 위나는 무척 기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위나는 나를 내려달라고 졸랐다. 그러고는 내 곁을 따라 달리며, 이따금 양옆으로 휘휘 달려가 내 주머니에 꽂아줄 꽃을 따오곤 했다. 위나는 내 주머니를 늘 신기하게 여겼는데, 결국 그것이 꽃을 장식하기 위한 독특한 형태의 꽃병이라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다. 적어도 위나는 꽃을 꽂는 용도로 주머니를 활용했다.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났다! 재킷을 갈아입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시간 여행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고는 아주 커다란 흰 말로(mallow) 꽃과 비슷하게 생긴, 시든 꽃 두 송이를 작은 탁자 위에 말없이 내려놓았다. 이윽고 그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녁의 정적이 세상을 덮어오고, 우리가 언덕마루를 넘어 Wimbleton 쪽으로 나아갈 때쯤 위나는 지쳐 있었다. 위나는 회색 돌로 지어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멀리 보이는 녹색 자기 궁전의 침

답들을 가리키며, 그곳이 위나가 느끼는 공포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간신히 이해시켰다.

해 질 녘이 오기 전,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그 고요한 순간을 아는가? 나무 사이를 흐르던 미풍조차 멎는 그런 순간 말이다. 나에게 그 저녁의 정적은 언제나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예감으로 다가온다. 하늘은 맑고 아득했으며, 저 멀리 노을 속에 가로로 그어진 몇 줄기 빛을 제외하면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그 예감은 나의 공포와 닮은 색을 띠었다. 어스름한 고요 속에서 나의 감각은 초자연적일 만큼 예민해진 듯했다. 발밑의 땅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땅속을 투시하여 개미굴 같은 곳에서 이곳저곳을 오가며 어둠을 기다리는 몰록들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흥분한 나머지, 나는 몰록들이 나의 침입을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도대체 왜 그들이 내 타임머신을 가져간 것일까?

우리는 정적 속에서 계속 나아갔고, 황혼은 점차 깊어져 밤이 되었다. 멀리 보이던 맑고 푸른 빛은 사라졌고,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지면은 어둡해졌고 나무들은 검게 변했다. 위나는 두려움과 피로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나는 위나를 품에 안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달래주었다. 어둠이 더욱 짙어지자, 위나는 내 목을 팔로 감싸 안았다. 그러고는 눈을 감은 채 내 어깨에 얼굴을 바짝 밀착했다. 우리는 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 어느 계곡에 닿았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나는 하마터면 작은 강물에 발을 들일 뻔했다. 나는 강물을 헤치고 건너 계

곡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 길에는 잠든 집들이 여럿 있었고, 머리가 없는 파우누스 혹은 그와 비슷한 형상의 조각상도 있었다. 그곳에도 아카시아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지금까지 물록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밤은 초입이었고, 초승달이 뜨기 전까지 더 깊은 어둠이 찾아올 시간이 남아 있었다.

다음 언덕의 능선에 올라서자, 눈앞으로 검고 울창한 숲이 넓게 펼쳐졌다. 나는 그 광경 앞에서 망설였다. 숲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몸이 몹시 피곤했고 특히 발이 너무 아팠기에,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어깨에 메고 있던 위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잔디 위에 주저앉았다. 이제 녹색 자기 궁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불분명했다.

나는 숲의 뻘뻘한 어둠 속을 들여다보며, 저 안이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생각했다. 가지들이 뒤엉킨 저 짙은 숲속으로 들어가면 별빛조차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설령 상상조차 하기 싫은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발에 걸리는 뿌리나 부딪히는 나무줄기만으로도 충분히 곤혹스러울 터였다. 게다가 하루 종일 겪은 소동 탓에 기운도 너무 빠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숲으로 들어가는 대신, 탁 트인 언덕 위에서 밤을 지내기로 했다.

위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재킷을 벗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러고는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그녀의 곁에 앉았다. 언덕은 고요하고 적막했으나, 검게 드리운 숲 속에서는 이따금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기척이 들려왔다. 밤하늘은 무

척이나 맑았고, 머리 위로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반짝이는 별빛을 보고 있자니 묘한 친밀감과 위안이 느껴졌다. 하지만 하늘에서 옛 성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인간의 백 번의 생애를 통틀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느린 움직임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별들을 낫선 모습으로 재배열해 놓은 것이다. 다만 은하수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별먼지가 흩뿌려진 해진 깃발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듯 보였다. 내가 판단하기로 남쪽 하늘에는 생전 처음 보는 아주 밝은 붉은 별이 떠 있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초록빛 시리우스보다 훨씬 더 찬란했다. 그리고 이 모든 반짝이는 빛의 점들 사이로, 밝은 행성 하나가 마치 오랜 친구의 얼굴처럼 다정하고도 변함없는 빛을 내뿜으며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내가 겪던 고민과 지상에서의 모든 중차대한 일들이 갑자기 보잘것없이 느껴졌다. 별들의 헤아릴 수 없는 거리, 그리고 미지의 과거로부터 미지의 미래를 향해 느릿하고도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별들의 움직임을 생각했다. 지구의 자전축이 그리는 거대한 세차 운동의 주기 또한 떠올랐다. 내가 지나온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저 고요한 회전은 고작 마흔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몇 번의 회전이 일어나는 동안, 내가 알던 인류의 모든 활동과 전통, 복잡한 조직과 국가, 언어와 문학, 열망, 심지어 인류에 대한 단순한 기억조차 모두 쓸려 나가 사라져 버렸다. 그 자리에는 고귀한 조상을 잊어버린 연약한 생명체들과, 내가 공포에 떨며 마주했던 그 하얀 존재들만이 남아 있었다.

문득 두 종족 사이에 흐르는 거대한 공포가 떠올랐다. 그러자 내가 보았던 그 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으로 소름 끼치는 깨달음이

명확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었다. 나는 내 곁에서 잠든 어린 위나를 바라보았다. 별빛 아래 위나의 얼굴은 하얗게 빛나며 마치 별처럼 보였다. 나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 긴 밤 동안 나는 할 수 있는 한 몰록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뒤섞인 별자리들 사이에서 예전의 성좌를 찾아보려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늘은 희뿌연 구름 한 점을 제외하면 아주 맑았다. 중간중간 잠이 들기도 했을 것이다.

밤샘을 이어가던 중,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색이 없는 불꽃이 반사되는 듯한 빛이었다. 이어 가늘고 뾰족하며 하얀 그믐달이 떠올랐다. 곧이어 새벽이 달을 뒤쫓아 따라붙더니, 달을 집어삼키며 넘쳐흘렀다. 새벽빛은 처음에는 창백하다가 점차 분홍빛을 띠며 따스하게 변져 나갔다.

몰록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사실 그날 밤 언덕 위에서 몰록을 본 적조차 없었다. 다시 밝아온 낮의 안도감 덕분에, 나의 두려움이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뒤축이 헐거워진 신을 신었던 쪽 발이 발목뼈가 부어오르고 뒤꿈치 아래가 옥신거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주저앉아 신발을 벗어 멀리 던져 버렸다.

나는 위나를 깨웠다. 우리는 숲으로 내려갔다. 검고 위협적이었던 숲은 이제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대신할 과일을 찾아냈다. 곧 우리는 햇살 아래서 웃고 춤추는 다른 엘

로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 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순간, 내가 보았던 그 고기 덩어리가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인류라는 거대한 홍수가 빠져나가고 남은, 이 마지막 가냘픈 물줄기를 보며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연민을 느꼈다. 인류가 쇠락해가는 머나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 몰록의 먹이가 부족해졌던 것이 분명했다. 아마도 그들은 쥐나 그런 해충들을 먹으며 버텼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인간조차 과거에 비하면 먹이를 가리는 식성이 훨씬 덜 까다롭다. 원숭이보다도 못할 정도다. 인육을 거부하는 편견은 결코 뿌리 깊은 본능이 아니다. 그러니 이 비인간적인 인류의 후예들은——!

나는 최대한 과학적인 태도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 애썼다. 결국 이들은 삼사천 년 전의 식인 조상들보다도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고, 우리와는 훨씬 동떨어진 존재들이니까. 게다가 이런 상태를 고통으로 느꼈을 지성마저 사라져 버렸다. 내가 왜 괴로워해야 한단 말인가? 이 엘로이들은 그저 살찐 가축에 불과했다. 개미 같은 몰록들이 보살피고 잡아먹는, 어쩌면 사육까지 하는 그런 가축 말이다. 그리고 내 곁에는 위나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때 나는 닥쳐오는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려 애썼다. 이 비극을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엄중한 형벌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인류는 동료 인간의 노동에 기대어 안락과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아왔다. 그들은 '필연'이라는 말을 구호로 삼고 변명거리로 삼았으나,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 필연이 인류에게 되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몰락해가는 이 가련한 귀족 계급을 향해 칼라일 식의 경멸마저 품어보려 했다.

하지만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엘로이의 지적 수준이 아무리 퇴보했다 한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너무나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나 또한 그들의 타락과 공포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무렵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주 막연하게나마 구상하고 있었다. 우선은 안전하게 몸을 피할 곳을 확보한 뒤, 내가 만들 수 있는 금속이나 돌로 무기를 제작해야 했다. 이는 당장 해결해야 할 급선무였다. 그다음으로는 불을 피울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싶었다. 횃불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했다. 몰록을 상대할 때 그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다음 계획은 흰 스프링크스 아래에 있는 청동 문을 부술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었다. 나는 공성퇴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만약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눈부신 불길을 앞세워 나아갈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을 찾아내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몰록들이 타임머신을 멀리 옮겨버릴 만큼 힘이 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위나는 우리 시대의 세계로 반드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계획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나는 상상 속에서 거처로 정해둔 그 건물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제XI장

녹색 자기 궁전

정오 무렵 그곳에 다다랐을 때, 나는 녹색 자기 궁전이 버려진 채 폐허로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창문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만이 너털너털하게 남아 있었고, 부식된 금속 골조에서는 녹색 외장재가 커다란 판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 있었다. 궁전은 풀이 무성한 구릉 위 아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 북동쪽을 바라보았는데, 나는 그곳에서 거대한 강어귀, 아니 어쩌면 후미라고 할 만한 물줄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과거에 완즈워스와 배터시가 있었을 법한 자리였다. 나는 그때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혹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생각했다. 비록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궁전의 재질을 조사해 보니 정말로 자기(porcelain)가 맞았다. 그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자로 된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다소 어리석게도 위나가 이 글자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위나는 글을 쓴다는 개념 자체를 전혀 떠올려 본 적이 없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을 뿐이다. 어쩌면 위나가 보여준 애정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에, 나는 그녀가 실제보다 더 인간다운 존재라고 느꼈던 것 같다.

열려 있고 부서진 커다란 문짝 사이로 들어서자, 늘 보던 복도 대신 수많은 측창에서 빛이 들어오는 긴 회랑이 나타났다. 처음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나는 마치 박물관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타일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그 회색 먼지 속에 덮여 늘어서 있었다. 그때 회랑 중앙에 기이하고 앙상하게 서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분명 거대한 해골의 하반신이었다. 비스듬히 놓인 발 모양을 보니, 메가테리움처럼 이미 멸종한 어떤 생물의 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두꺼운 먼지 위로 해골의 머리뼈와 상반신 뼈가 흩어져 있었는데, 지붕의 틈새로 빗물이 떨어진 곳은 그 형체조차 마모되어 사라진 상태였다. 회랑 더 안쪽에는 브론토사우루스의 거대한 골격이 통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이로써 박물관일 것이라는 나의 가설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옆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경사진 선반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두꺼운 먼지를 걷어내자, 우리 시대에나 볼 법한 익숙한 유리 진열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열장 안의 내용물들이 꽤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진열장들은 분명 밀폐되어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분명 우리는 근대의 사우스 켄싱턴 유적지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 곳은 아마도 고생물학 전시실이었을 것이다. 한때는 화석들이 아주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을 터였다. 박테리아와 균류가 멸종하면서 부패

의 과정이 잠시 멈췄고, 그 힘도 구십구 퍼센트나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은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시금 이곳의 모든 보물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작은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이 보였다. 부서진 화석 조각들이나 갈대 줄기에 꿰어 놓은 화석들이 그러했다. 어떤 전시 케이스들은 통째로 사라져 있었는데, 내 짐작으로는 물록들이 가져간 듯했다. 주변은 매우 고요했다. 두 겹게 쌓인 먼지가 우리의 발소리를 죽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자 전시 케이스의 경사진 유리 위로 성계를 굴리며 놀던 위나가 다가왔다. 위나는 아주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내 곁에 섰다.

지적 시대가 남긴 이 고대의 유물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것이 제시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타임머신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조차 잠시나마 뒤로 물러날 정도였다.

이곳의 규모로 미루어 보아, 이 '녹색 자기 궁전'에는 고생물학 전시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아마 역사 전시실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도서관까지도 있었을지 모른다! 적어도 지금 내 처지에서는, 퇴락해 가는 고대 지질학의 잔해를 구경하는 것보다 그런 곳들이 훨씬 더 흥미로웠을 것이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첫 번째 전시실과 가로로 교차하는 짧은 전시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그곳은 광물 전시실인 듯했는데, 유황 덩어리를 보자마자 머릿속에는 화약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초석은커녕 어떤 종류의 질산염도 찾을 수 없었다. 틀림없이 아주 오래전에 녹아 없어졌

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황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으로 이어졌다. 그 전시실의 나머지 전시물들은 내가 본 것들 중 대체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았지만, 딱히 흥미가 생기지는 않았다. 나는 광물학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처음 들어왔던 홀과 평행하게 뻗은, 매우 황폐한 통로를 따라 계속 걸어갔다. 보아하니 이 구역은 자연사 전시실이었던 모양인데, 모든 것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한때 박제였을 말라비틀어지고 검게 변한 흔적들, 예전에는 보존액이 담겨 있었을 유리병 속의 바싹 마른 미라들, 그리고 죽은 식물들이 남긴 갈색 먼지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것이 안타까웠다. 살아 있는 자연이 정복을 이루어 온 그 인내심 어린 적응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리는 규모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거대하지만, 유독 빛이 잘 들지 않는 전시실에 다다랐다. 그곳의 바닥은 내가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천장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흰색 구체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중 많은 것이 금이 가거나 박살 나 있었다. 이를 보아하니 원래 이곳은 인공 조명을 사용했던 모양이다.

이곳에 이르자 나는 비로소 내 취향에 맞는 장소를 찾은 기분이었다. 내 양옆으로 거대한 기계들이 육중한 몸체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심하게 부식되었거나 망가져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제법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알다시피 나는 기계 장치에

사족을 못 쓰는 편이라, 그곳에 좀 더 머물고 싶어졌다. 게다가 그 기계들은 대부분 수수께끼 같은 흥미를 자아냈고, 그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는 아주 막연하게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만약 이 수수께끼들을 풀 수만 있다면, 목록에 맞서 싸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위나가 내 곁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만약 위나가 아니었다면, 전시실 바닥이 경사져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각주: 물론 바닥이 실제로 경사진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언덕 비탈에 지어졌던 것일 수도 있다.—편집자] 내가 들어온 입구는 지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고, 드문드문 난 좁은 창문들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전시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면이 점점 높아져 창문을 가로막았다. 결국 창문 앞에는 런던 저택의 '에어리어'처럼 움푹 파인 구덩이가 생겼고, 위쪽에는 가느다란 빛줄기만이 남았다.

나는 기계들을 살피느라 정신이 팔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기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빛이 점차 줄어드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위나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주의를 돌릴 수 있었다. 그제야 전시실 끝이 짙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먼지는 이전보다 적어졌고, 그 표면도 그리 고르지 않았다. 희미한 어둠이 깔린 먼 곳을 보니, 작고 좁은 발자국들이 바닥을 어지럽히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자 몰록이 근처에 있다는 느낌이 다시금 강하게 살아났다. 기계들을 학구적으로 관찰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오후가 깊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내게는 아직 무기도, 피신처도, 불을 피울 수단도 없었다. 바로 그때, 전시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기묘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물 아래에서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였다.

나는 위나의 손을 잡았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녀를 뒤로하고 기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기계에는 신호소에서나 볼 법한 레버가 하나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발판 위로 기어 올라가 레버를 움켜쥐고는, 옆으로 온 체중을 실었다. 중앙 통로에 홀로 남겨진 위나가 갑자기 킁킁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레버의 강도를 꽤 정확하게 가늠했던 모양인지, 1분 정도 힘을 주자 레버가 툭 하고 부러져 버렸다. 나는 곧장 위나에게 돌아갔다. 내 손에는 철퇴가 들려 있었다. 내가 마주칠 지도 모를 어떤 몰록의 해골이라도 충분히 부술 수 있을 만큼 묵직한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몰록 한 마리쯤은 꼭 죽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자신의 후손을 죽이고 싶어 하다니, 참으로 비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당신은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괴물들에게서 인류애를 느끼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위나를 혼자 두고 떠나기 싫다는 마음, 그리고 만약 내가 살육의 갈증을 채우기 시작했다가는 내 타 임머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만이, 전시실을 곧장 내려가 들려오는 그 짐승들을 죽이려는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한 손에는 철퇴를, 다른 한 손에는 위나를 쥐고 나는 그 회랑을 빠져 나와 또 다른 회랑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훨씬 더 거대한 규모였는데, 처음 마주한 순간 낡은 깃발들이 걸린 군용 예배당을 떠올리게 했다. 벽면에 매달린 갈색의 그을린 누더기들은 곧 책이 부패하며 남은 흔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책들은 이미 오래전에 형체도 없이 바스러졌고, 인쇄된 글자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저기 뒤틀린 표지들과 금이 간 금속 걸쇠들이 남아 그 정체를 충분히 짐작게 했다. 내가 문학가였다면 아마도 모든 야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에 대해 도덕적인 성찰을 늘어놓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 내 마음을 강렬하게 파고든 것은, 이 어둡고 황량한 종이의 황무지가 증명하는 엄청난 노동의 낭비였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순간 나는 주로 《철학 학술지》와 물리 광학에 관해 내가 썼던 열일곱 편의 논문을 떠올렸다.

넓은 계단을 올라가자, 한때 공업 화학 전시실이었을 법한 곳에 다다랐다. 나는 이곳에서 유용한 물건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적잖은 기대를 품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린 한쪽 끝을 제외하면, 이 전시실은 보존 상태가 꽤 양호했다. 나는 파손되지 않은 진열장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뒤졌다. 마침내 공기가 완벽히 차단된 진열장 중 하나에서 성냥 한 갑을 찾아냈다. 나는 아주 간절하게 성냥을 그어 보았다. 성냥은 아주 잘 켜졌다. 습기조차 전혀 차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위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언어로 "춤을 춰!"라고 외쳤다. 이제 나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끔찍한 생물들에 맞설 진정한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버려진 박물관의 두껍고 부드러운 먼지 카펫 위에서, 나는 위나가 무척 기뻐하는 가운데 엄숙하게 일종의

혼합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가능한 한 쾌활하게 <진실한 자들의 땅(The Land of the Leal)>을 휘파람으로 불면서 말이다. 그 춤은 약간의 캥캥과 스텝 댄스, 그리고 (내 연미복이 허용하는 한) 스커트 댄스가 섞인 데다, 나만의 독창적인 동작까지 가미된 형태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본래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이 성냥갑이 아득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내게 무척 기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 물질을 발견했다. 바로 장뇌(camphor)였다. 우연이었겠지만, 밀봉된 병 안에 담긴 채 아주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파라핀 왁스인 줄 알고 유리병을 깨뜨려 버렸다.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장뇌의 향기는 분명했다. 만물이 부패하고 스러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 휘발성 물질이 수만 세기의 시간을 뚫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그 모습은 언젠가 보았던 세피아톤의 그림을 떠올리게 했다. 수백만 년 전에 죽어 화석이 된 벨레르나이트의 먹물로 그렸다는 바로 그 그림 말이다. 나는 장뇌를 버리려다, 이것이 불에 잘 타며 아주 밝은 불꽃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사실상 훌륭한 양초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폭발물이나 청동문을 부술 만한 도구는 찾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우연히 얻은 철제 지렛대가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우 들뜬 마음으로 그 회랑을 떠났다."

그 긴 오후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탐험했던 일들을 제대로 된 순서대로 하나하나 떠올리려면 엄청난 기억력이 필요

할 것이다. 녹슨 무기들이 길게 늘어선 회랑이 기억난다. 그곳에서 나는 지렛대와 도끼, 혹은 검 사이에서 무엇을 가져갈지 망설였다. 하지만 둘 다 챙길 수는 없었고, 청동 문을 부수기에는 쇠지렛대가 가장 나을 것 같았다.

그곳에는 수많은 총과 권총, 소총이 있었다. 대부분은 녹이 슬어 덩어리져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새로운 금속으로 만들어져 여전히 제법 멀쩡한 상태였다. 다만 한때 탄약이나 화약이 있었다 해도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한쪽 구석은 검게 그을리고 산산조각이 나 있었는데, 아마 전시물 중 하나가 폭발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했다.

다른 곳에는 거대한 신상들이 줄지어 있었다. 폴리네시아, 멕시코, 그리스, 페니키아의 것들까지, 아마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온 것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나는 건잡을 수 없는 층동에 이끌려, 유독 내 눈길을 끌었던 남미산 활석 괴물 상의 코 위에 내 이름을 적어 두었다.

저녁이 깊어지자 흥미도 점차 식어갔다. 나는 먼지 쌓인 채 고요하고, 때로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전시실들을 하나하나 지나쳐 갔다. 전시물들은 어떤 곳에서는 그저 녹슨 덩어리와 갈탄 더미에 불과했고, 어떤 곳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 그러다 한곳에서 우연히 주석 광산 모형 근처에 다다랐는데, 아주 뜻밖의 행운으로 밀폐된 상자 안에 담긴 다이너마이트 두 발을 발견했다. 나는 "유레카!"라고 외치며 기쁨에 겨워 상자를 부수었다.

하지만 곧 의구심이 들었다. 나는 망설였다. 결국 작은 옆 전시실을 골라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기로 했다. 폭발이 일어나기를 5분, 10분,

15분 동안 기다리며 느꼈던 그 실망감은 생전 처음 겪는 것이었다. 물론 그 물건들은 가짜였다. 애초에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던 일이다. 만약 그것들이 진짜였다면, 나는 아마 그 자리에서 당장 달려나가 스프링스상과 청동 문, 그리고 결국 확인되었듯 타임머신을 찾을 기회까지 통째로 날려버렸을 것이다.

그 일이 있는 뒤에야 우리는 궁전 안의 작은 안뜰에 도착한 것 같다. 안뜰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과일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기운을 차렸다. 해가 저물 무렵, 나는 우리의 처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 몸을 숨길 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점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게는 물록을 막아낼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성냥이었다! 불길을 일으켜야 할 상황을 대비해 주머니에는 장뇌도 넣어 두었다. 불을 피워놓고 탁 트인 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타임머신을 찾아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손에 든 무기라고는 철퇴뿐이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저 청동 문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열어보지 않고 참아왔다. 문 자체가 아주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기에, 내가 가진 철 막대로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제XII장

어둠 속에서

태양이 지평선 위로 아직 걸려 있을 때, 우리는 궁전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반드시 흰 스팅크스에 도착하리라 다짐했다. 또한 해가 지기 전에는 지난 여정에서 발길을 막았던 숲을 통과할 계획이었다. 그날 밤은 가능한 한 멀리 이동한 뒤, 불을 피워 그 불빛이 만들어내는 보호막 안에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나뭇가지나 마른 풀을 모두 모았고, 이내 내 양팔에는 그런 잡동사니가 가득 쌓였다. 짐을 잔뜩 짊어진 탓에 전진 속도는 예상보다 더뎠고, 게다가 위나도 지쳐 있었다. 나 역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숲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숲 가장자리의 관목이 우거진 언덕에서 위나는 눈앞의 어둠을 두려워하며 멈춰 서려 했다. 하지만 불길한 재앙이 닥칠 것만 같은 기묘한 예감이 나를 계속 몰아붙였다. 사실 그 예감은 나에게 경고가 되었어야

마땅했다. 나는 하룻밤과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라 열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잠이 몰려오는 것이 느껴졌고, 그 잠과 함께 몰록들도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등 뒤의 검은 덩불 사이로 웅크리고 있는 형체 세 개가 보였다. 그것들은 덩불의 검은빛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주변은 온통 덩불과 긴 풀로 뒤덮여 있어서, 그들이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낼 방도가 없어 불안했다. 내가 계산하기에 숲의 폭은 1마일이 채 되지 않았다. 숲을 가로질러 탁 트인 언덕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곳이 훨씬 안전한 휴식처가 될 것 같았다. 성냥과 장뇌를 이용해 숲속에서도 길을 밝히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성냥을 손에 들고 불을 붙으려면 땀감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땀감을 내려놓았다. 그러다 문득, 불을 붙여 뒤에 남은 친구들을 놀라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어리석음이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저 후퇴하는 길을 밝히려는 기발한 수라고만 여겼을 뿐이다.

인간이 사라진 뒤, 온화한 기후 속에서 불꽃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열대 지방에서 가끔 그렇듯 이슬방울로 햇빛을 모은다 해도, 태양열이 무언가를 태울 만큼 강한 경우는 드물다. 번개가 내리쳐 무언가를 태우거나 검게 그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광범위한 화재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부패하는 식물들이 발효 열기로 간혹 연기를 내며 타오를 수는 있어도, 불꽃이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처럼 쇠락해가는 세상에서 불을 피우는 기술은 지구상에서 이미 잊힌 상태였다. 내 앞에 쌓아둔 나무 더

미를 훑으며 타오르는 붉은 불꽃은, 위나에게는 완전히 새롭고도 생경한 광경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 함께 놀고 싶어 했다. 내가 붙잡지 않았다면 아마 그 속으로 몸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낚아챘고, 그녀가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 숲속으로 과감히 발을 내디뎠다. 얼마간은 내가 피운 모닥불의 불빛이 길을 비추어 주었다. 잠시 뒤 뒤를 돌아보니, 뻣뻣한 나무줄기 사이로 내가 쌓아둔 나뭇가지 더미에서 시작된 불길의 인근 덩불로 번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불길은 언덕의 풀밭을 따라 곡선을 그리며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린 뒤, 다시 눈앞의 어두운 나무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사방은 철쭉같이 어두웠고, 위나는 경련하듯 내게 매달렸다. 그래도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나무줄기를 피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은 남아 있었다. 머리 위는 그저 암흑뿐이었으나, 간간이 멀리 보이는 푸른 하늘이 틈새로 비쳐 들었다. 나는 성냥을 켜지 않았다.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왼팔로는 작은 위나를 안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철봉을 쥐고 있었다.

얼마간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머리 위로 스치는 희미한 바람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와 귓가에 울리는 혈관의 고동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등 뒤에서 무언가 다다다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비장한 각오로 계속 나아갔다. 발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이윽고 지하 세계에서 들었던 그 기묘한 소리와 목소리들이 다시 들려왔다. 분명 물록들이 여러 마리였고, 그들은 나를 포위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실제로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누군가 내 코트를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고, 이어 팔 쪽에도 무언가 닿았다. 그 순간 위나는 격렬하게 몸을 떨더니 이내 완전히 굳어버렸다.

성냥을 켤 때가 되었다. 하지만 성냥을 꺼내려면 그녀를 내려놓아야만 했다. 나는 그녀를 내려놓았다. 주머니를 더듬는 사이, 무릎 근처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다투음이 시작되었다. 위나는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물록들은 특유의 구구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드러운 작은 손들이 내 코트와 등을 타고 올라와 목덜미까지 만져댔다.

이윽고 성냥을 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었다. 나는 타고 오르는 성냥을 들고 나무 사이로 도망치는 물록들의 하얀 등을 지켜보았다. 나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장뇌 한 덩이를 꺼냈다. 성냥불이 꺼지자마자 바로 불을 붙일 준비를 마쳤다.

그러고 나서 위나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땅에 묻은 채 내 발을 꼭 붙잡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갑작스러운 공포가 밀려왔고, 나는 그녀를 향해 몸을 숙였다. 숨조차 거의 쉬지 않는 듯 보였다. 나는 장뇌에 불을 붙여 바닥으로 던졌다. 장뇌가 갈라지며 불길의 확 타오르자, 물록들과 어둠이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 틈을 타 무릎을 굽혀 그녀를 들어 올렸다. 등 뒤의 숲에서는 마치 거대한 무리가 뒤섞여 움직이며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기절한 듯 보였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메고 다시 길을 재촉하려 일어섰다. 바로 그때, 끔찍한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성냥을 켜고 위나를 챙기느라 몸을 이리저리 돌린 탓에, 내가 어

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어쩌면 나는 다시 '청자 궁전' 쪽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르게 판단해야 했다. 결국 나는 불을 피우고 지금 있는 곳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여전히 미동도 없는 위나를 잔디가 덮인 나무 밑동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첫 번째 장뇌 조각이 다 타들어 가기 전, 서둘러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모으기 시작했다. 어둠 속 여기저기서 몰록의 눈들이 마치 붉은 보석처럼 번뜩였다.

장뇌가 깜빡이다 꺼졌다. 나는 성냥을 켜다. 그 순간, 위나에게 다가오던 하얀 형체 두 개가 황급히 달아났다. 그중 하나는 빛에 눈이 멀었는지 나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나는 주먹을 휘둘렀고, 내 주먹에 부딪힌 놈의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을 받았다. 놈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더니, 몇 걸음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나는 다시 장뇌에 불을 붙이고 모닥불을 피울 재료를 계속 모았다.

그러다 문득 머리 위 나뭇잎들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 깨달았다. 타 임머신에 올라탄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무 사이를 뒤져 떨어진 잔가지를 찾는 대신, 위로 뛰어올라 나뭇가지를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곧 푸른 나뭇가지와 마른 막대기가 뒤섞여 연기가 매캐하게 나는 불꽃이 일었고, 덕분에 장뇌를 아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내 철퇴 옆에 쓰러져 있는 위나에게로 향했다. 어떻게든 위나를 깨워보려 애썼지만,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을 뿐이었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불길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내 쪽으로 밀려왔고, 그 때문에 갑자기 몸이 무거워졌다. 게다가 공기 중에는 장뇌 향이 감돌고 있었다. 불을 다시 지피지 않아도 한 시간 정도는 거뜰할 터였다. 온 힘을 다한 뒤라 몹시 피곤했던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숲속 나무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나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그저 잠깐 꾸벅 졸다가 눈을 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사방은 칠흑 같았고, 물록들이 내 몸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나를 휘감는 그들의 손가락을 거칠게 뿌리치며 급히 주머니 속 성냥갑을 찾았지만, 성냥갑은 사라지고 없었다! 곧이어 물록들이 다시 나를 움켜쥐고 압박해 왔다.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나는 잠이 들었고, 그사이 불은 꺼져 버린 것이다. 죽음의 쓰라림이 내 영혼을 덮쳐왔다. 숲 전체에 나무 타는 냄새가 가득한 듯했다.

그들은 내 목과 머리카락, 팔을 붙잡고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어둠 속에서 이 부드러운 생물들이 내 몸 위로 무더기로 포개지는 것을 느끼는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것만 같았다. 나는 힘에 눌려 쓰러졌다. 목덜미를 잘디잔 이빨들이 갉아대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몸을 뒤척였고, 그 과정에서 손에 철제 레버가 닿았다. 레버를 잡자 힘이 솟았다. 나는 나를 덮친 인간 쥐 같은 괴물들을 흔들어 뿌리치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레버를 짧게 잡은 채, 얼굴이 있을 법한 곳을 향해 힘껏 내질렀다. 타격할 때마다 살점과 뼈가 뭉개지는 감촉이 전해졌고, 덕분에 잠시나마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격렬한 싸움에 흔히 뒤따르듯, 묘한 환희가 나를 덮쳤다. 나와 위나가 모두 끝장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몰록들이 우리를 잡아먹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나무를 등지고 서서 눈앞으로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숲 전체가 몰록들의 소란스러운 움직임과 비명으로 가득 찼다. 1분이 흘렀다. 놈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흥분하여 높아졌고, 움직임도 빨라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다가오지는 못했다. 나는 어둠을 노려보며 버텼다.

그때 갑자기 희망이 찾아왔다. 만약 몰록들이 겁을 먹은 것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그 생각 뒤에 기이한 현상이 뒤따랐다. 어둠이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희미하게나마 내 주변에 몰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발치에는 세 마리가 얼어맞아 쓰러져 있었다. 그러다 나는 믿기지 않는 놀라움 속에 다른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몰록들이 끊임없이 줄을 지어 내 뒤에서부터 나타나, 내 앞의 숲을 가로질러 달아나고 있었다. 놈들의 등은 더 이상 하얗지 않고 붉은빛을 띠고 있었다.

내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을 때, 나뭇가지 사이로 별빛이 비치는 틈을 지나 작은 붉은 불꽃 하나가 떠다니다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타오르는 나무 냄새, 이제는 거센 포효로 변해가는 나른한 속삭임, 붉은 광채, 그리고 몰록들이 도망치는 이유를 말이다.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와 뒤를 돌아보자, 가까이 있는 나무들의 검은 기둥 사이로 불타는 숲의 화염이 보였다. 내 뒤를 쫓아온 첫 번째 불길이었다. 그와 동시에 위나를 찾았으나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치익거리는 소리와 타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나무가 불길에 휩싸일 때마다 터져 나오는 폭발적인 굉음 때문에 깊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나는 여전히 철봉을 움켜쥔 채 물록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 달렸다. 필사적인 경주였다. 달리는 도중 오른쪽에서 불길이 너무 빠르게 엄습해 오는 바람에, 퇴로가 끊길 뻔하여 급히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던 적도 있었다. 마침내 작은 공터로 빠져나왔을 때, 물록 한 마리가 나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들더니 내 옆을 지나 그대로 불길 속으로 돌진해 버렸다!

그때 나는 그 미래 시대에 목격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이하고도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불길이 반사되어 온 공간이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중앙에는 작은 언덕 혹은 고분이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그을린 산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너머로는 불타는 숲의 또 다른 줄기가 뻗어 있었는데, 이미 노란 불꽃의 혀가 꿈틀거리며 솟구치고 있었다. 불길은 마치 율타리처럼 그 공간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다. 언덕 위에는 서른 혹은 마흔 명 정도의 물록들이 있었다. 그들은 빛과 열기에 눈이 멀어, 당혹감에 사로잡힌 채 서로 부딪히며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물록들이 내게 다가오자 쇠지렛대를 휘둘러 맹렬히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한 마리를 죽이고 여러 마리에게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붉은 하늘 아래 산사나무 밑에서 한 마리가 더듬거리며 움직이는 몸짓을 지켜보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저들은 이 눈부신 빛 속에서 완전히 무력하고 비

참한 상태라는 것을 말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따금 어떤 놈이 나를 향해 곧장 달려들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온몸을 떨게 만드는 공포가 밀려왔고, 나는 서둘러 그놈을 피해야만 했다. 한때는 불길의 다소 잦아든 적도 있어서, 저 불결한 괴물들이 곧 나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는 놈들에게 들리기 전에 먼저 몇 놈을 죽여서 싸움을 시작할까 생각했다. 그러나 불길이 다시 밝게 타올랐고, 나는 손을 멈추었다. 나는 위나의 흔적을 찾으며 언덕 위를 돌아다녔다. 놈들 사이를 지나치며 조심스럽게 피했지만, 위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침내 나는 언덕 꼭대기에 주저앉았다. 타오르는 불길이 비치는 가운데, 눈먼 존재들이 이 기괴하고 믿기지 않는 무리를 지어 이리저리 더듬거리며 서로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내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용돌이치며 솟구치는 연기가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갔다. 마치 다른 우주의 것인 양 아득하게 흩어진 붉은 천 조각들 사이로 작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몰록 두세 마리가 나에게 무모하게 달려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휘둘러 그들을 쫓아냈다.

그날 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이것이 악몽이라고 굳게 믿었다. 깨어나고 싶다는 격렬한 갈망에 나는 제 살을 깨물고 비명을 질렀다. 손으로 땅을 내리치기도 하고, 일어났다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이리저리 헤매다 다시 자리에 앉기도 했다. 그러다 눈을 비벼대며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신에게 부르짖기도 했다. 몰록들이 일종의 고통에

힉싸인 듯 머리를 처박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세 번이나 목격했다. 하지만 마침내, 잿아드는 붉은 불길과 실 새 없이 뿔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하얗게 타거나 검게 그을린 나무 그루터기,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그 희미한 생물들 너머로 낮의 하얀 빛이 밝아왔다.

위나의 흔적을 다시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가여운 위나의 작은 몸을 숲속에 버려두고 떠난 것이 분명했다. 위나가 마주해야 했을 그 끔찍한 운명을 피했다는 생각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생각을 하니, 내 주변을 떠도는 무력하고 혐오스러운 괴물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싶은 충동마저 일었으나 겨우 참아냈다.

앞서 말했듯, 그 언덕은 숲속의 섬과도 같았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 서자 자욱한 연기 너머로 '녹색 자기 궁전'이 보였다. 그 궁전을 이정표 삼아 '흰 스프링스'가 있는 곳을 가늠할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여기저기를 배회하며 신음하는 저 저주받은 영혼들의 잔해를 뒤로한 채, 날이 점점 밝아오는 가운데 발에 풀을 동여매고, 연기 나는 잿더미 위를 가로지르고 속에서 여전히 불길이 맥동하는 검은 줄기들 사이를 헤치며 타임머신이 숨겨진 곳을 향해 절뚝거리며 나아갔다.

다리를 다친 데다 기력마저 거의 다했기에 나는 천천히 걸었다. 동시에 작은 위나가 겪었을 그 끔찍한 죽음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감당할 수 없는 재앙처럼 다가왔다. 지금 익숙한 방에 앉아 돌이켜보면, 그때의 슬픔은 실제의 상실이라기보다 꿈속의 비극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사건은 나를 다시금

철저히 고립시켰다. 지독할 정도로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나의 이 집과 따스한 벽난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들이 밀려들 때마다 고통에 가까운 그리움이 차올랐다.

하지만 밝은 아침 하늘 아래, 연기가 피어오르는 재 위를 걸어가던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바지 주머니에 아직 성냥 몇 개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성냥갑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성냥 몇 개가 갑에서 새어 나왔던 모양이다.

제XIII장

흰 스팅크스의 함정

오전 8시나 9시쯤, 나는 도착했던 그날 저녁에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과 똑같은 황금빛 금속 의자에 앉았다. 그날 저녁 내가 내렸던 성급한 결론들을 떠올리니, 나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비웃음이 나올 만큼 한심하게 느껴졌다. 눈앞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무성한 잎사귀와 화려한 궁전, 웅장한 폐허, 그리고 비옥한 강둑 사이를 흐르는 은빛 강물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화사한 옷을 입고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어떤 이들은 내가 위나를 구해냈던 바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가슴이 날카롭게 찢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지상 세계의 아름다움 위로, 지하 세계로 통하는 길목에 세워진 돔 모양의 지붕들이 마치 풍경을 망치는 얼룩처럼 솟아 있었다. 이제야 나는 지상 세계 사람들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하루는 들판의 가축들이 보내는 하루만큼이나 평온하고 즐거웠다. 가축들처럼 그들에게도 적이란 없었으며, 무언가를 대비해

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 또한 가축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인간 지성이 품어온 꿈이 이토록 짧았다는 사실에 나는 슬픔을 느꼈다. 그 꿈은 스스로 자살을 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인류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 안전과 영속성을 구호로 내걸며 균형 잡힌 사회를 이루고자 했다. 마침내 그 모든 희망을 이루어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한때 인류는 생명과 재산을 거의 완벽하게 보호받는 단계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부유한 자는 자신의 부와 안락을 보장받았고, 노동하는 자는 자신의 삶과 일터를 보장받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완벽한 세상에는 실업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난제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정적이 찾아왔다.

변화와 위험, 그리고 고난에 대처하기 위해 지적 다재다능함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다.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동물은 그 자체로 완벽한 기계와 같다. 자연은 습성과 본능이 더 이상 쓸모없어질 때 비로소 지성을 요구한다. 변화가 없고 변화할 필요조차 없는 곳에는 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수많은 필요와 위험에 맞서야 하는 동물만이 지성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지상의 인간은 나약하고 예쁘장한 모습으로 변해갔고, 지하의 인간은 그저 기계적인 노동에만 몰두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상태조차 기계적 완벽함에 있어서는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다. 바로 절대적인 영속성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하 세계를 먹여 살리는 방식이, 그것이 어떤 방식이었던 간

에, 점차 어긋나기 시작한 듯했다. 수천 년 동안 간신히 버텨온 ‘필요’라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지하 세계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지하 세계는 기계와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기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습관적인 움직임 외에 약간의 사고는 필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하의 인간들은 다른 모든 인간적 특성은 잃었을지언정, 지상의 인간들보다는 아마도 조금 더 주도적인 능력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다 다른 먹잇감이 부족해지자, 그들은 지금까지 오랜 관습이 금지해 왔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가 802,701년의 세계를 마지막으로 목격했을 때 본 모습이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잘못된 설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이해한 방식이며, 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한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피로와 흥분, 그리고 공포를 뒤로하고 나니, 슬픔이 가시지 않았음에도 이 자리에 앉아 바라보는 평온한 풍경과 따스한 햇살은 무척이나 안락하게 느껴졌다. 나는 몹시 지치고 졸음이 쏟아져, 이론을 구상하던 생각마저 이내 흐릿해지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문득 내가 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신호를 따라 잔디밭 위에 몸을 길게 뉘었다. 그리고 곧 길고도 상쾌한 잠에 빠져들었다.

해 질 녘이 되기 직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제는 몰록에게 허를 찔릴까 봐 걱정할 단계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몸을 쪽 펴고 기

지개를 켜 뒤, 흰 스프링스를 향해 언덕을 내려갔다. 한 손에는 쇠지렛대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 속 성냥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스프링스 받침대에 다가갔을 때, 청동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밸브는 홈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었다.

그 광경에 나는 그것들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선뜻 안으로 들어서기가 망설여졌다.

내부는 작은 방이었다. 방 구석 높은 곳에는 타임머신이 놓여 있었다. 작은 레버들은 내 주머니 속에 있었다. 흰 스프링스를 공략하기 위해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했건만, 결국 이곳에서 나는 순순히 항복하고 말았다. 나는 철봉을 멀리 던져버렸다. 그것을 차마 쓰지 못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울 정도였다.

입구 쪽으로 몸을 숙였을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몰록의 사고방식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았다.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나는 청동 프레임을 지나 타임머신에게로 다가갔다. 그런데 타임머신을 보니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기름칠까지 정성스럽게 되어 있어 깜짝 놀랐다. 그 후로 나는 몰록들이 그 어두운 방식으로나마 타임머신의 용도를 파악해 보려고, 기계를 부분적으로나마 분해해 보았던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내가 그 장치를 가만히 서서 살펴보며, 그 기계적인 촉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있을 때,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청동 판들이 갑자기 위로 미끄러지듯 올라가더니 쇳소리를 내며 틀에 부딪혔다. 사방은 어둠에 잠겼고, 나는 간히고 말았다. 물록들은 내가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나는 즐거움에 겨워 킁킁거리고 말았다.

그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며 웅성웅성 웃는 소리가 벌써 들려왔다. 나는 아주 침착하게 성냥을 그으려 애썼다. 레버를 조작한 뒤 유령처럼 그곳을 떠나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다. 성냥이 상자에 문질러야만 불이 붙는, 그 빌어먹을 종류의 것이었다.

내가 얼마나 평정심을 잃었는지 짐작이 가실 것이다. 그 작은 짐승들이 내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다. 놈들 중 하나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나는 어둠 속에서 레버를 휘둘러 놈들을 쳐내며 타임머신의 안장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한 손이 내 몸을 붙잡더니, 곧이어 또 다른 손이 덮쳐왔다. 나는 끈질기게 레버를 가로채려는 놈들의 손가락을 막아내는 동시에, 레버를 끼워 넣을 돌기들을 더듬어 찾아야만 했다.

실제로 레버 하나를 거의 뺏길 뻔한 적도 있었다. 레버가 손에서 미끄러지자, 나는 그것을 되찾으려고 어둠 속에서 머리를 들이받았다. 물록의 해골에 내 머리가 부딪히며 텅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방금 겪은 이 처절한 몸부림은, 숲속에서 벌어졌던 싸움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침내 레버가 고정되었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당겼다. 나를 붙들고 있던 손들이 스르르 미끄러져 나갔다. 곧이어 눈앞의 어둠이 걷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묘사했던 그 회색빛 광경과 소란스러운 혼란 속에 놓여 있었다.

제XIV장

더 먼 미래의 광경

“시간 여행을 할 때 찾아오는 구토와 혼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장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앉은 데다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였으니까요. 타임머신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동안,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 동안 기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제가 도착한 곳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기판 하나는 날짜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수천 일을, 또 다른 하나는 수백만 일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수십억 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버를 뒤로 밀어 시간을 되돌리는 대신, 앞으로 밀어 시간을 앞당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해 보니, 수천 일을 가리키는 바늘이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빠르게 미래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나아가자, 주변 풍경이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요동치던 회색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러더니 내가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속도가 느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 낮과 밤의 깜빡이는 교차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점점 더 뚜렷해졌다. 처음에는 이 현상이 무척 당혹스러웠다. 밤낮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더 느려졌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 또한 느려지더니, 마침내 수 세기에 걸쳐 일어나는 일처럼 보였다.

결국 지구 위에는 은은한 황혼이 늘 머물게 되었다. 어둑해진 하늘을 가로질러 혜성이 번뜩이며 지나갈 때만 간간이 그 황혼이 깨질 뿐이었다. 태양의 위치를 알려주던 빛의 띠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태양이 지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태양은 그저 서쪽에서 떠올랐다 내려앉기를 반복하며, 점점 더 넓고 붉게 변해갔다. 달의 흔적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점점 느려지던 별들의 회전은 어느덧 느릿하게 움직이는 빛의 점들로 바뀌어 있었다.

멈추기 얼마 전, 마침내 붉고 거대한 태양이 지평선 위에 정지했다. 태양은 둔탁한 열기를 내뿜으며 빛나는 거대한 돔처럼 보였고, 때때로 순간적으로 빛을 잃기도 했다. 한때 태양이 잠시 더 찬란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이내 다시 침울한 붉은 열기 상태로 돌아갔다. 태양의 뜨고 지는 속도가 이렇게 느려진 것을 보니, 조석력에 의한 저항이 끝났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우리 시대의 달이 지구를 향해 있듯, 지구는 한쪽 면을 태양으로 향한 채 멈춰 선 것이다.

이전에 겪었던 급격한 추락을 떠올리며,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타임머신의 움직임을 역방향으로 바꾸었다. 회전하는 바늘의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더니, 수천 일을 가리키는 바늘은 움직임이 멈춘 듯 보였고, 하루를 가리키는 바늘은 더 이상 눈금 위에서 흐릿한 안개처럼 보이지 않았다. 속도를 더욱 늦추자, 마침내 황량한 해변의 희미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멈추고 타임머신 위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늘은 더 이상 푸르지 않았다. 북동쪽 하늘은 잉크를 뿌린 듯 검게 물들어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창백하고 하얀 별들이 밝고 일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머리 위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짙은 인디언 레드 빛을 띠었다. 반면 남동쪽 하늘은 점점 밝아지더니 타오르는 듯한 진홍색으로 변해갔다. 그곳 지평선 너머로 붉고 정지된 거대한 태양의 몸체가 걸려 있었다. 내 주변의 바위들은 거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처음 눈에 들어온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바위의 남동쪽 돌출부마다 뒤덮인 강렬한 초록빛 식물들뿐이었다. 그것은 숲의 이끼나 동굴 속 지의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성한 초록빛이었다. 마치 이 식물들처럼, 영원한 황혼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체들이었다.

타임머신은 경사진 해변에 세워져 있었다. 남서쪽으로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창백한 하늘을 배경으로 날카롭고 밝은 지평선이 솟아올라 있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파도나 물결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미세하고 기름진 물결이 완만한 호흡처럼 오르내리며, 영겁의 바다가 여전히 움직이며 살아있음을 보여줄 뿐이었다. 물결이 가끔 부딪히는 물가에는 소금 결정이 두껍게 굳어 있었는데, 불그스름한 하늘 아

래서 분홍빛으로 빛났다. 머리가 압박감을 느꼈고, 내가 숨을 매우 가쁘게 몰아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감각은 예전에 등산을 했던 유일한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곳의 공기는 지금보다 훨씬 희박한 듯했다.

황량한 경사면 저 멀리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동시에 거대한 흰 나비 같은 형체가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펼쳐지며 날아오르더니, 저 너머 낮은 언덕 위를 빙글빙글 돌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 비명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던지, 나는 몸서리를 치며 타임머신 위에 몸을 더 단단히 고쳐 앉았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자, 바위 덩어리인 줄로만 알았던 붉은 물체가 내 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곧 그것이 사실은 괴물 같은 게의 형상을 한 생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기 있는 탁자만큼이나 커다란 게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다리는 느릿하고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커다란 집게발은 흔들거렸다. 마부의 채찍처럼 생긴 긴 더듬이는 이리저리 휘저으며 주변을 더듬었고, 금속질의 앞부분 양옆에 달린 눈자루 위에서는 눈동자가 번뜩이며 나를 노려보았다. 게의 등껍질은 물결 모양으로 울퉁불퉁했고 투박한 돌기들이 장식되어 있었으며, 곳곳에는 녹색 이물질이 얼룩덜룩하게 묻어 있었다.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복잡하게 생긴 입 주변의 수많은 더듬이들이 파르르 떨리며 주변을 탐색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를 향해 기어오는 이 불길한 환영을 응시하고 있을 때, 마치 파리한 마리가 내려앉은 것처럼 뺨에 무언가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다. 손을 휘둘러 털어내려 했지만, 곧이어 다시 무언가 닿았고, 거의 동시에 이

번에는 귀 옆으로 또 다른 것이 다가왔다. 나는 그것을 치려고 손을 휘두르다 실 같은 무언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나는 구역질이 날 정도의 공포를 느끼며 몸을 돌렸다. 그러자 내 바로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괴물 게의 더듬이를 내가 붙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괴물은 눈자루 위에서 사악한 눈을 꿈틀거리고 있었고, 입은 식욕으로 가득 차 꿈틀대고 있었다. 조류의 점액이 뒤섞인 거대하고 투박한 집게발은 나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급히 레버를 당겼고, 순식간에 이 괴물들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만큼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해변에 머물러 있었다. 타임머신을 멈추자마자 그들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어두운 빛 속에서, 짙은 초록빛 잎사귀들 사이로 수십 마리의 괴물이 여기저기 기어 다니고 있는 듯했다.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 끔찍한 황량함을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 붉게 물든 동쪽 하늘과 북쪽의 철흑 같은 어둠, 소금기 가득한 사해, 그리고 불결하고 느릿하게 움직이는 괴물들이 기어 다니는 돌밭의 해변까지. 이끼 낀 식물들이 뿜어내는 독기 어린 초록빛과 폐를 찌르는 듯한 회박한 공기까지 더해져, 그 모든 것이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백 년의 시간을 더 나아갔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태양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흐릿해졌을 뿐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고, 바다는 죽어가는 모습 그대로였으며,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초록빛 해초와 붉은 바위 사이를 기어 다니는 흙빛 갑각류 때도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서쪽 하늘에는 거대한 초승달 같은 창백하고 굽은 선이 보였다.

나는 지구의 운명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 신비에 이끌려, 천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한 걸음씩 크게 내디디며 끊임없이 여행을 계속했다. 서쪽 하늘에서 태양이 점점 더 커지고 빛을 잃어가는 모습과, 오래된 지구의 생명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광경을 나는 기묘한 매혹에 빠진 채 지켜보았다. 마침내 삼천만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거대하고 붉게 달아오른 태양의 돔은 어둑해진 하늘의 10분의 1가량을 거의 다 가릴 정도로 커져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섰다. 기어 다니던 수많은 게는 이미 사라졌고, 붉은 해변에는 검푸른 초록빛의 우산이끼류와 지의류를 제외하면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해변에는 흰색 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매서운 추위가 나를 엄습했다. 드문 드문 흰 눈송이가 소용돌이치며 내려앉았다. 북동쪽으로는 검은 하늘의 별빛 아래 눈이 번쩍이고 있었고, 분홍빛이 도는 흰색의 구름들이 물결치듯 굽이치는 모습이 보였다. 바다 가장자리를 따라 얼음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보다 먼 바다에는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영원한 노을 아래 핏빛으로 물든 그 소금 바다의 넓은 대양은 여전히 얼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물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살폈다. 형언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여전히 타임머신의 안장에 붙들어 매고 있었다. 하지만 땅 위나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위 위에 낀 초록빛 점액만이 생명이 아직 멸종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바다에는 얇은 모래톱이 드러나 있었고, 해변에서는 물이 빠져나가 있었다. 나는 그 모래톱 위에서 검

은 물체가 파닥거리는 것을 본 듯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물체는 움직임을 멈췄고, 나는 내 눈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다. 그 검은 물체는 그저 바위였을 뿐이었다. 하늘의 별들은 강렬할 정도로 밝았으며, 내 눈에는 거의 깜빡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서쪽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태양의 둥근 윤곽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태양의 곡선 한쪽이 움푹 파인 듯, 마치 만(灣)처럼 꺾여 나간 것이다. 그 파인 부분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낮을 집어삼키며 기어 들어오는 그 검은 그림자를 보고 잠시 동안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곧 일식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달이나 수성 중 하나가 태양의 원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당연히 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본 것이 지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한 내행성의 통과 현상이었다고 믿게 만드는 정황이 아주 많다.

어둠이 빠르게 밀려왔다. 동쪽에서 상쾌한 돌풍이 불어오며 찬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공중에는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며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바닷가에서는 잔물결이 일며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생기 없는 소리들을 제외하면 세상은 고요했다. 고요했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 정적을 말로 다 표현하기란 어려울 정도였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소리, 양의 울음소리, 새의 지저귀, 곤충의 웅웅거림, 그리고 우리 삶의 배경을 이루는 모든 움직임이 전부 끝난 듯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눈앞에서 춤추는 눈송이는 더욱 거세졌고,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마침내 멀리 보이는 언덕의 하얀 봉우리들이 하나둘씩, 아주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산들바람은 어느덧 울부짖는

듯한 바람으로 변했다. 개기일식의 검은 그림자가 나를 향해 휩쓸려 오는 것이 보였다. 잠시 후에는 창백한 별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빛 한 점 없는 암흑이었다. 하늘은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다.

거대한 어둠이 나를 덮치자 공포가 밀려왔다. 뺏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몸은 떨렸고 죽을 것 같은 메스꺼움이 나를 덮쳤다. 그때, 마치 하늘에 그어진 붉게 달궈진 활처럼 태양의 가장자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몸을 추스르기 위해 타임머신에서 내려왔다.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아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속이 울렁거리고 정신이 혼미한 채 서 있을 때, 바다의 붉은 물결 위로 모래톱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다시 보였다.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둥근 형태였는데, 축구공만 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커 보였다. 그 아래로는 축수들이 늘어져 있었다. 요동치는 핏빛 바다를 배경으로 그 물체는 검게 보였고, 불규칙하게 툭툭 튀어 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이 멀고도 끔찍한 황혼 속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나를 붙들었다. 나는 그 공포를 동력 삼아 간신히 안장 위로 기어 올라갔다.

제XV장

시간 여행자의 귀환

그렇게 나는 돌아왔다. 한동안은 타임머신 위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던 모양이다. 깜빡이며 이어지던 낮과 밤의 흐름이 다시 시작되었다. 태양은 다시금 황금빛으로 빛났고, 하늘은 푸른색을 되찾았다. 나는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지형의 굴곡은 밀물과 썰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며 흘러갔다. 계기판의 바늘은 거꾸로 회전했다. 마침내 희미한 집들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쇠락해가는 인류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흔적들 또한 변하고 사라지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다. 이윽고 백만 단위의 눈금이 0을 가리키자, 나는 속도를 줄였다. 익숙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대의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천 단위의 눈금이 시작점으로 되돌아갔고, 밤과 낮의 교차는 점점 더 느릿하게 움직였다. 그러다 마침내 실험실의 오래된 벽들이 내 주변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이제 아주 천천히 기계의 속도를 늦추었다.

“이상하게 느껴진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 속도가 아주 빨라지기 전의 상황을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왓챳 부인이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는데, 제 눈에는 마치 로켓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 부인이 실험실을 가로지르던 그 짧은 순간을 다시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의 모든 움직임이 이전과는 정반대로 보였습니다. 실험실 아래쪽 끝에 있는 문이 열리더니, 부인은 뒷모습을 보이며 실험실을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듯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아까 들어왔던 그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 직전에 힐리어의 모습이 아주 잠깐 보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번쩍이는 섬광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타임머신을 멈췄다. 그러자 내가 떠나온 그대로의 익숙한 실험실과 도구들, 그리고 장비들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아주 비틀거리며 기계에서 내려와 작업대 위에 주저앉았다. 몇 분 동안은 몸이 격렬하게 떨려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점차 진정이 되었다. 주변은 다시 예전의 작업실로 돌아와 있었다. 모든 것이 원래 모습 그대로였다. 어쩌면 내가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모든 것을 꿈으로 꾸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임머신은 실험실의 남동쪽 구석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러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벽 쪽, 북서쪽 구석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제 작은 잔디밭에서부터, 물록들이 타임머신을 옮겨 놓은 흰 스팅크스 받침대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정신이 멍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몸을 일으켜 이곳 통로를 지나왔습니다. 뒤통치가 여전히 아파서 절뚝거리야 했고, 온몸은 흠먼지로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문 옆 탁자 위에 놓인 <팠 몰 가제트>지를 보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정말 오늘이더군요요. 시계를 보니 거의 8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목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기운이 없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맛있고 든든한 고기 냄새를 맡고는 여러분이 있는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씻고 저녁을 먹었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XVI장

이야기가 끝난 뒤에

잠시 말을 멈춘 그가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늘 밤 이 익숙한 방에서 여러분의 다정한 얼굴들을 마주하며 이 기이한 모험담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는 의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믿어주길 바랄 수는 없겠지요. 그냥 거짓말로 여기셔도 좋고, 예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작업실에서 꿈을 꾸었다고 여기셔도 됩니다. 혹은 제가 인류의 운명을 사색하다가 이런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마저,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예술적 장치일 뿐이라고 치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파이프를 집어 들더니, 평소 습관대로 초조하게 파이프를 벽난로 창살에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카펫 위로 구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시간 여행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려 그를 둘러싼 청중들을 살펴보았다. 방 안은 어두웠고, 사람들의 눈앞에는 색색의 빛방울들이 어른거렸다. 의사는 우리 집주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편집자는 벌써 여섯 대째 피우고 있는 시가 끝부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기자 한 명은 시계를 찻느라 손을 더듬거렸다. 내가 기억하기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편집자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시간 여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이 소설가가 아니라니, 정말 아쉬운 일이군요!”

“믿기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시간 여행자가 우리를 돌아보았다. “성냥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는 성냥 하나를 켜고는, 파이프 담배를 피워 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조차도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시든 하얀 꽃들을 향했다. 말 없는 질문을 던지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어 그는 파이프를 쥐고 있는 손을

뒤집어 보았고, 나는 그가 자신의 손가락 마디에 남은, 채 아물지 않은 흉터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 쪽으로 다가와 꽃을 살피보았다. “암술이 좀 이상하군요.” 그가 말했다. 심리학자는 표본을 채취하려는 듯 손을 내밀며, 꽃을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세상에, 벌써 12시 45분이군.” 기자라고 불린 남자가 말했다. “이제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요?”

“역에 택시가 아주 많을 겁니다.” 심리학자가 말했다.

“참으로 기묘하군요.” 의사가 말했다. “이 꽃들이 어떤 종류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좀 가져가도 될까요?”

시간 여행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대답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들을 정말 어디서 구한 겁니까?” 의사가 물었다.

시간 여행자는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는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는 생각을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말했다. “시간 여행을 떠날 때, 위나가 내 주머니에 넣어준 거야.”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응시했다. “모든 게 사라지고 있어. 이 방도, 당신들도,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이 일상조차 내 기억 속에서 버티질 못하는군. 내가 정말 타임머신을 만들었었나? 아니면 타임머신의 모형이라도 만들었었나?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꿈인가? 사람들은 삶이 꿈이라고들 하지. 때로는

지독히도 보잘것없는 꿈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내 기억과 맞지 않는 또 다른 꿈은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미칠 것 같군. 대체 이 꿈은 어디서 온 거지? ... 그 기계를 확인해야 해. 만약 정말 있다면 말이야!”

그는 재빨리 램프를 낚아채더니, 붉은 불빛을 번뜩이며 문을 지나 복도로 나갔다. 우리도 그 뒤를 따랐다. 일렁이는 램프 불빛 아래, 타임머신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 황동과 흑단, 상아, 그리고 반투명하게 빛나는 석영으로 만들어진 그 기계는 낮고 못생긴 데다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난간을 만져보았는데, 만져지는 감촉은 단단했다. 상아 부분에는 갈색 얼룩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아랫부분에는 풀과 이끼 조각들이 묻어 있었으며, 난간 하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휘어 있었다.

시간 여행자는 벤치 위에 등불을 내려놓고는, 손으로 손상된 난간을 훑어 내려갔다. “이제 괜찮소.” 그가 말했다. “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소. 이 추운 곳까지 여러분을 불러내어 미안하군.” 그는 다시 등불을 집어 들었다. 우리는 완전한 정적 속에서 흡연실로 돌아갔다.

그는 우리와 함께 홀로 들어와 편집자의 코트 벗는 것을 도와주었다. 의사가 그의 얼굴을 살피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과로 증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열린 문가에 서서 크게 인사를 외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편집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그는 이 이야기가 "화려하게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정작 나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

야기는 너무나 환상적이고 믿기 어려웠지만, 그것을 들려주는 방식은 지극히 신뢰할 만하고 차분했기 때문이다. 나는 밤새도록 그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다음 날, 다시 시간 여행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실험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평소 그 집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던 터라 곧장 실험실로 올라갔다. 하지만 실험실은 비어 있었다. 나는 잠시 타임머신을 뺀히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레버를 만져보았다. 그러자 뭉툭하고 단단해 보이던 덩어리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휘청거렸다. 그 불안정한 움직임에 나는 몹시 놀랐고, 어릴 적 무언가에 손대지 말라는 꾸중을 듣던 시절의 묘한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복도를 지나 돌아 나왔다. 시간 여행자는 흡연실에서 나를 맞이했다. 그는 집 안에서 막 나오는 길이었다. 한쪽 팔에는 작은 카메라를 끼고, 다른 쪽 팔에는 배낭을 끼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웃음을 터뜨리며, 악수 대신 팔꿈치를 내밀었다.

"저 안에 있는 물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다 속임수는 아닙니까?" 내가 물었다. "정말로 시간을 여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더니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시선이 방 안 여기저기를 배회했다. "딱 삼십 분이면 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왜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

다. 여기 잡지들이 좀 있으니 읽고 계십시오.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신다면, 표본을 포함해 시간 여행이 사실임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이만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때는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그저 그러겠노라 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실험실 문이 콧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일간지를 집어 들었다. 그가 점심시간 전까지 무엇을 하려는 걸까? 그러다 문득 광고 하나를 보고는, 오후 두 시에 출판업자인 리처드슨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시계를 확인하니 약속 시간을 겨우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간 여행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복도를 따라 내려갔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끝이 기묘하게 잘려 나간 비명과 함께 무언가 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돌풍 같은 공기가 내 주변을 휘감았고, 안쪽에서는 유리 파편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 여행자는 그곳에 없었다. 검은색과 황동색이 뒤섞여 회전하는 덩어리 속에서, 형체가 불분명하고 유령 같은 모습이 아주 잠깐 보인 듯했다. 그 형체는 너무나 투명해서 뒤편에 놓인 도면들이 깔린 벤치가 흰히 들여다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눈을 비비는 사이 그 환영은 사라져 버렸다. 타임머신은 사라지고 없었다. 가라앉는 먼지의 소란을 제외하면, 실험실 저편은 텅 비어 있었다. 천장의 채광창 유리 한 장이 방금 막 깨져 들어온 모양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이로움이 밀려왔다. 무언가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히 느껴졌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당장 분간할 수 없었다. 내가 멍하니 서서 바라보고 있을 때,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더니 하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다.

“—— 씨가 저쪽 길로 나간 건가요?”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쪽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해했다. 리처드슨을 실망시킬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시간 여행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가져올 두 번째 이야기, 어쩌면 훨씬 더 기이할 그 이야기를 기다렸으며, 그가 가져올 표본과 사진들도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시간 여행자가 사라진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에필로그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과연 다시 돌아올 것인가? 어쩌면 그는 과거로 휩쓸려 내려가, 다듬어지지 않은 석기 시대의 피를 마시는 털 많은 야만인들 사이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혹은 백악기 바다의 심연이나, 쥐라기 시대의 거대하고 기괴한 파충류 짐승들 사이로 말이다.

감히 표현하자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플레시오사우루스가 출몰하는 어느 올라이트기 산호초를 헤매고 있거나, 트라이아스기 시대의 외로운 염호 곁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는 미래로 나아갔을까? 인간이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우리 시대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지루한 문제들이 해결된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대로 말이다. 인류가 진정한 성숙기에 접어든 시대로 말이다. 나로서는, 미약한 실험과 파편적인 이론, 그리고 서로의 불화만이 가득한 이 말기적인 시대가 인류의 정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그가 인류의 진보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타임머신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우리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일이지만, 그는 문명이 쌓아 올리는 거대한 더미를 보며 그것이 결국 그것을 만든 자들을 덮쳐 끝내 파멸시키고 말 어리석은 축적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야 할 뿐이다.

하지만 나에게 미래는 여전히 칠흑 같은 공백이다. 그의 이야기가 남긴 기억이 군데군데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을 뿐, 거대한 무지의 영역일 뿐이다. 다만 내 곁에는 위안이 되어줄 기이한 하얀 꽃 두 송이가 남아 있다. 이제는 시들고 갈색으로 변해 납작하고 바스러질 것 같지만, 이 꽃들은 증거가 되어준다. 지성과 힘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서로를 향한 애뜻함이 여전히 살아 숨 쉬었다는 사실을 말이다.